

---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

2018. 08. 0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2018.8.8.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제 출 문

## 국가교육회의 의장 귀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18.04.30.부터 2018.08.03.까지 약 3개월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대표로 참여한 490명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2018.07.11.부터 2018.07.29.까지 약 3주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저희 위원회에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08.0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u>김영란</u>
위원	강현철	<u>강현철</u>
	김학린	<u>김학린</u>
	심준섭	<u>심준섭</u>
	이명진	<u>이명진</u>
	이희진	<u>이희진</u>
	한동섭	<u>한동섭</u>

대입제도개편 시민참여단 490명



## 시민참여단 (490명)

강균례	김귀우	김성구	김은호	김형봉	박경애	박정자	손연기	오채형	이명희	이인희	전길순	조성원	하수점
강대회	김규화	김성규	김인성	김형수	박고은	박종성	송기호	오태조	이미경	이재문	전병호	조승현	한사례
강병주	김길환	김성래	김장수	김형준	박남수	박종숙	송미옥	오형근	이미숙	이정아	전상언	조영세	한석진
강병진	김나연	김성만	김재용	김혜성	박노정	박준연	송보람	윙희경	이미연	이종석	전세진	조영웅	한승민
강솔비	김대연	김성조	김재현	김혜원	박다운	박창수	송영준	원선영	이미영	이종심	전제월	조용암	한영희
강원임	김대하	김세은	김재환	김혜원	박다희	박한준	송일선	유두장	이미진	이주아	전주환	조운재	한재원
강유남	김덕구	김수연	김전옥	김혜자	박동식	박해진	송준정	유부들	이민호	이주연	전지현	조하영	한정숙
강차경	김도완	김수현	김정수	김혜진	박란희	박현옥	송창희	유산근	이부옥	이주영	전지혜	조한솔	한정승
강창훈	김도혁	김수형	김정곤	김효민	박명숙	박현정	송희자	유성재	이상룡	이지영	전철	조희원	한철수
강춘구	김도형	김수호	김정수	김효신	박무진	박효권	신강호	유점선	이상명	이지현	전현정	주영숙	한효진
강활성	김동민	김순월	김정애	김희균	박미숙	박흥식	신귀자	유진순	이상미	이진영	전혜성	주재희	한희수
고광석	김동민	김순자	김정애	김희영	박미정	반정우	신동미	유현민	이상익	이진호	정경심	지경숙	허경순
고민정	김연자	김순학	김정우	나길우	박민중	배경태	신동호	유혜숙	이상현	이진희	정경일	지정훈	허경태
고승삼	김영석	김승경	김정화	나성운	박서연	배선옥	신상철	유화동	이선영	이창국	정대원	진병철	허예지
고영주	김영순	김승현	김종건	나환희	박선희	배성훈	신승욱	유희숙	이선희	이춘심	정미령	진선아	허현미
고영주	김문자	김신호	김종철	남두현	박성웅	배재준	신윤정	윤덕숙	이성신	이충범	정미진	차숙진	현영만
고윤희	김미경	김연우	김주용	노정민	박세은	배정효	신일승	윤미자	이성희	이하빈	정범수	채종인	현정길
고주열	김미연	김연은	김준하	도아린	박소하	백남길	신중현	윤서정	이수화	이한솔	정병욱	천미경	홍병국
고태림	김미영	김연주	김종원	류광	박수진	백선초	신진돈	윤소연	이숙경	이행주	정병호	천성복	홍상운
고희열	김미향	김영숙	김지숙	류기석	박숙우	백승훈	신현선	윤은주	이승구	이현경	정봉금	천신애	홍순옥
공병학	김민경	김영숙	김지자	류성훈	박순봉	백종엽	안건희	윤정희	이승희	이혜숙	정상훈	천예준	홍순익
공윤숙	김민석	김영식	김진성	류영숙	박순심	변선아	안경찬	이경임	이신재	이혜진	정선영	최동섭	홍옥유
곽근영	김민정	김영우	김진영	류은경	박승아	변인순	안동준	이경희	이영희	이홍자	정선희	최서윤	홍윤숙
곽기숙	김병순	김영철	김창구	목양	박시내	사근실	안미정	이규훈	이영희	이희봉	정승아	최석환	홍지민
곽은선	김병찬	김영하	김춘복	문명호	박신연	서강석	안세현	이근영	이옥경	인소현	정윤	최용민	홍하늘
구회정	김복순	김영호	김태수	문병일	박영숙	서길원	양상영	이나래	이요한	임만재	정윤지	최용순	황경자
권가연	김봉애	김영호	김태숙	문뵈나라	박영애	서동현	양은주	이남엽	이용규	임세종	정인관	최윤성	황기은
권서로	김빛나	김용태	김태웅	문성식	박영희	서동휴	양준영	이남영	이원화	임현우	정재선	최은희	황숙연
권아현	김상남	김용태	김태익	문수현	박용숙	서보경	여현순	이동규	이윤수	장문	정주희	최재영	황영희
권지은	김상민	김욱	김평순	문준호	박우정	서선자	염선혜	이동익	이은미	장봉길	정준희	최재용	황영희
권진우	김상범	김원택	김학순	문태호	박은진	서은정	오경숙	이동현	이은정	장봉희	정진주	최정욱	황옥희
권혁수	김상혁	김원희	김학진	민경덕	박인주	서정학	오금자	이동후	이은지	장용복	정하일	최주연	황유선
김가연	김선미	김위신	김해선	민선미	박정희	성기병	오병선	이동훈	이은희	장옥주	정해민	최진실	황윤석
김경애	김선연	김윤숙	김현경	민주희	박정숙	소후철	오세준	이득용	이의범	장종열	제갈대나	최해숙	황정태
김경희	김선자	김은중	김현철	박경복	박정숙	손남숙	오창훈	이명애	이인균	장진만	조건행	최형선	황진국



# I.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개요

□ 공론화 기간 : 2018. 04. 30. ~ 07. 29. (91일)

□ 공론화 방식

-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한 의제 선정
- 대입제도개편 시민참여형 조사

□ 조사 실시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일자	7.14~15	7.27	7.29
참여자(명)	512	491	490

□ 숙의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보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숙의 토론회(권역별)</li><li>○ 2차 숙의 토론회(종합, 2박3일)</li><li>○ 숙의 자료집</li><li>○ 이러닝 동영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래세대 토론회(권역별)</li><li>○ 국민대토론회(권역별)</li><li>○ TV토론회(6회)</li><li>○ 국민소통 온라인 플랫폼</li></ul>

## II.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 1.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4가지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지지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의제별 평균점수 기준으로 의제1(3.40점), 의제2(3.27점)가 1위, 2위였으며, 의제별 지지 비율 기준으로도 의제1(52.5%), 의제2(48.1%)가 1위,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제1과 의제2에 대한 지지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양자 모두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2.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 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경우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현행 비율(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을 고려할 때 20% 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1%이고, 20%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82.7%로 현행보다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은 현행 수준에서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선발 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현행 비율(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 36.7%)을 고려할 때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4.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을 조사한 결과,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전과목 절대평가 26.7% 및 절대평가 과목 확대 27.0%)로 현행 유지 의견 11.5%, 현행보다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전과목 상대평가 의견 19.5%+상대평가 과목 확대 15.3%)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5. 입시제도의 방향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62점(중요하다는 의견 95.7%),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42점(중요하다는 의견 92.8%)로 다른 방향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6.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으며, 공론화 과정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 93.0%가 존중하겠다고 답변하여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화 과정이 시민참여단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3.7%로 나타났습니다.

### Ⅲ. 조사 결과의 함의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 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의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중심의 의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단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한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참여단은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 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은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 였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보고서

---

2018. 08. 0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목 차

<b>I.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개요</b> .....	<b>1</b>
1. 공론화 추진배경 및 방법 .....	3
2. 공론화위원회 구성 .....	5
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의의 .....	5
<b>II. 공론화 운영의 기본 체계</b> .....	<b>7</b>
1. 개요 .....	9
2. 정기회의 .....	9
3. 분과위원회 .....	11
4. 공론화 의제 협의회 .....	15
5. 검증위원회 .....	17
<b>III. 공론화 과정의 주요내용</b> .....	<b>19</b>
1. 공론화 의제 선정 .....	21
2. 대국민소통 .....	33
3. 시민참여형조사 설계 및 진행 .....	34
4. 숙의 프로그램 .....	40
5. 대국민 소통 .....	51

IV.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 .....	61
---------------------------	----

V.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	71
----------------------	----

1. 조사개요 .....	73
2. 의제에 대한 조사결과 .....	74
3. 공론화과정에 대한 평가 .....	87

VI. 주요성과 및 제언 .....	93
---------------------	----

1. 주요성과 .....	95
2. 제언 .....	98

### **[별첨]**

별첨1.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주요 일지 .....	103
별첨2. 시민참여형 조사 설문지[대국민조사, 시민참여단 1~3차] .....	107
별첨3. 대국민조사 설문 결과 .....	152
별첨4.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발표문 .....	158



# I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개요



1. 공론화 추진배경 및 방법
2. 공론화위원회 구성
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의의



# 1. 공론화 추진 배경 및 방법

## 가. 추진 배경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통해 제출할 권고안을 받아 결정하기로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4월 12일(목)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 왔으며,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공론화 정의 및 방법

### (1) 공론화 정의

공론이란 사전적으로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정한 의견을 말한다. 아울러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 사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방 또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고 민주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2) 공론화 방법

공론화 방법으로 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등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는 쟁점의 다양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가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워크숍과 시민참여형 조사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시민참여단이 학습하고 숙의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다. 한편 시민참여형 조사에서는 도출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숙의(熟議,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한 후 시민참여단이 각 의제 등에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최종 도출하였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적용된 시민참여형 조사는 일반 대중들의 피상적인 의견이나 태도 조사에 그치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사회과학적인 조사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작은 대한민국’인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의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한 각자의 최종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정제된 시민 여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 다. 공론화 과정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공론화 추진 절차 및 일정

절차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의견수렴	⇒	공론화 범위 설정	⇒	공론화 의제 선정 (시나리오 워크숍: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협의)	⇒	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	시민참여형 조사	⇒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일정	4-5월		5월		6월		6~7월		7월		8월초
주관	대입특위		공론화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공론화 과정 첫 단계에서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가 주관하여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후 대입특위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공론화 의제에 대해 권역별 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실시된 시민참여형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대표성 확보를 위해 사회과학적인 조사통계 방법을 바탕으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그간 수렴된 의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의 의제별 심층 학습, 토론 등의 속의 과정을 거친 후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공론화 결과가 도출되었다.

## 2. 공론화위원회 구성

### 가. 필요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의 성패는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 있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 나.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역할

위와 같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주관할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의 제3조1항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의거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대입제도 개편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7인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이하 소통분과, 숙의분과, 조사통계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마다 2인의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첫째, 대입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셋째, 도출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의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토양이다. 과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공론화 기제들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 수렴 도구들은 시민들의 숙의에 기반한 판단이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단순한 태도나 의견을 합산한 것이 여론으로 간주된다.

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숙의적 공론화 절차들은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 기반의 여론을 얻어내는데 적합한 기제들이다. 숙의적 공론화의 본질은 이해관계와 가치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하여 열린 토론과 학습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데 있다. 또한 숙의적 공론화 방안들은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 중심의 결정이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책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불확실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시민들의 가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화 절차는 전문가적 지식과 시민적 가치를 결합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정부가 협력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는 기존 전문가 및 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워크숍과 시민참여형 조사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즉, 시나리오 워크숍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제를 개발함으로써 의제의 정련성을 제고하였으며, 사회과학적 조사통계 방식으로 선정된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하여 학습 및 토론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숙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작은 대한민국’을 구성해서 참여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민적 지혜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합의 형성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II. 공론화 운영의 기본 체계



1. 개요
2. 정기회의
3. 분과위원회
4. 공론화 의제 협의회
5. 검증위원회



## 1. 개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숙의·경청하는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위원장과 조사·통계, 사회적 갈등관리, 소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인등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사·숙의·소통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였고 그 후 진행된 숙의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제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론화 의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독립된 기관을 선정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 처음 시도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정기회의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주요사안에 대한 결과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매주 월요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공론화 기간 중 정기회의는 총 14회 개최하였고, 정기회의 직후 보도자료 배포, 언론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표 2-1** 공론화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현황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제1차	'18.4.30(월)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대학입시제도 개편 이송안 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추진방안 보고
제2차	'18.5.16(수)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공론화위원회 운영(안) ·공론화위원회 분과구성 운영(안) ·공론화 추진계획(안) ·개소식 및 현판식 계획(안)
제3차	'18.5.23(수)	한국방송대 나눔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안) ·공론화 추진관련 세부계획(안)
제4차	'18.5.30(수)	한국방송대 나눔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기술평가 및 1차 표본설계(안) ·검증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시나리오 워크숍 추진계획(안) ·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안)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이해관계자협의회 구성의 건
제5차	'18.6.4(월)	한국방송대 나눔관	·제4차 국가교육회의 자료-공론화 범위 설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안) ·숙의자료집 작성 계획(안) ·TV토론회 계획(안) ·매체 광고 계획(안)
제6차	'18.6.11(월)	한국방송대 나눔관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구성(안) ·대국민조사 세부계획(안)
제7차	'18.6.20(수)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조사 설문지(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안) ·국민대토론회 추진계획(안) ·미래세대 토론회 추진계획(안) ·시나리오 워크숍 추진결과
제8차	'18.6.27(수)	한국방송대 나눔관	·공론화 의제 추가 및 변경 가능 여부(안) ·숙의자료집 목차 구성(안) ·공론화의제협의회 구성·운영(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검증기관 선정(안) ·회의록 등 자료 공개계획(안)
제9차	'18.7.4(수)	한국방송대 나눔관	·시민참여단 1차 숙의 토론회 일정(안) ·공론화 숙의자료집 이러닝 학습자료 개발(안) ·국민소통 플랫폼 데이터 분석 계획(안) ·회의록 등 자료 공개 계획(안)
제10차	'18.7.11(수)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공론화 의제 관련 정보 제공 기준(안) ·시민참여단 1차 조사 설문지(안)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안) ·대국민조사 결과 보고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보고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제11차	'18.7.18(수)	한국방송대 나눔관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일정(안) ·시민참여단 2차 조사 설문지(안) ·공론화 의제 협의회 5차 회의 결과 보고 ·미래세대토론회 결과 보고
제12차	'18.7.23(월)	한국방송대 나눔관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일정 수정(안) ·시민참여단 3차 조사 설문지(안)
제13차	'18.7.26(목)	한국방송대 나눔관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일정 변경(안) ·시민참여단 3차 조사 설문지 수정(안)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관련 추가보고
제14차	'18.8.3(금)	정부서울청사	·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 3. 분과위원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개 분과(조사, 숙의, 소통)로 나누고,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언론과의 소통을 대표하기 위해 한동섭 위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이희진 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지원단 직원들도 분과별로 담당 역할을 분장하여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분과 위원들과 지원단 직원 간에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제를 준비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2-2**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명	조사	숙의	소통
위 원	강현철 이명진	김학린 심준섭	이희진(간사) 한동섭(대변인)

## 표 2-3 각 분과별 운영실적

### [조사 분과]

회의 일자	논의 사항
1차 회의 (5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규모 논의</li> <li>- 시민참여형 조사의 최종 응답자수</li> <li>- 시민참여단 구성인원</li> </ul>
2차 회의 (5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형 조사 입찰공고를 위한 제안서 논의</li> <li>- 주요 과업범위 설정</li> <li>- 제안서 구성 및 평가사항 점검</li> </ul>
3차 회의 (5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업체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논의</li> <li>• 1차 조사 표본설계 방법 논의</li> </ul>
4차 회의 (5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수행업체 기술평가위원회 풀 구성 및 선정</li> <li>- 내외부 기술평가위원회 풀 구성(분과별) 후 랜덤하게 선택</li> <li>• 시민참여형조사 총 4회 구성</li> <li>-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시민참여단 1~3차 조사</li> <li>- 차수별 조사문항 작성 계획 논의</li> </ul>
5차 회의 (6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표본설계 최종 점검</li> <li>- 19세 이상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li> <li>-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비례배분</li> </ul>
6차 회의 (6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조사문항 최종 점검</li> <li>- 대입제도의견, 시민참여단 참여의사 등</li> <li>•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방법 논의</li> <li>- 휴대전화·집전화 혼합비율</li> <li>- 접촉성공률 및 응답률 제고 방안 검토</li> <li>- 재접촉 횟수 등 고려 대국민조사기간 15일 이상 확보</li> </ul>
7차 회의 (6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진행상황 점검 및 논의</li> <li>- 진행상황 점검을 통한 추가 휴대전화(가상번호, RDD) 및 집전화 투입일정 및 방법 확인</li> </ul>
8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선정 논의</li> </ul>

회의 일자	논의 사항
(7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조사완료에 따른 시민참여단 표본설계 및 추출방법 점검</li> <li>- 검증위원회 입회하에 시민참여단 추출</li> <li>• 시민참여단 1차 조사 문항 검토</li> </ul>
9차 회의 (7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1차 조사 문항 점검</li> <li>- 2차 및 3차 문항과 중복 필요성 검토 등</li> <li>• 시민참여단 2~3차 조사 문항 검토</li> </ul>
10차 회의 (7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2차 및 3차 조사 설계 방향 검토</li> <li>• 시민참여단 2차 및 3차 문항 검토</li> <li>- 문항별 분석 방법 점검</li> <li>- 문항간 연계분석 적절성 점검</li> </ul>
11차 회의 (7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3차 문항 검토</li> <li>- 부가질문 및 증장기 대입제도에 대한 개발</li> </ul>
12차 회의 (8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조사결과 검토</li> </ul>

### [숙의 분과]

회의 일자	논의 사항
1차 회의 (5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화 운영방법, 일정 협의</li> <li>•공론화 분과구성 방법 검토</li> </ul>
2차 회의 (5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화 관련 주요 쟁점 논의</li> <li>- 시나리오 워크숍 토론 주제 등</li> <li>- 숙의동영상은 제공 시기 검토</li> </ul>
3차 회의 (5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입특위와 합동 간담회 검토</li> </ul>
4차 회의 (5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화 추진 관련 세부계획 검토</li> <li>- 시나리오 워크숍 일정</li> <li>-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li> <li>- 자료검증단 구성 및 운영 방안</li> </ul>
5차 회의 (5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협의</li> <li>- 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원회 별도 구성 검토</li> <li>•시나리오 워크숍 세부 운영 계획 협의</li> <li>•이해관계자 협의회 구성방안 검토</li> </ul>

회의 일자	논의 사항
6차 회의 (6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의자료집 작성 계획 협의</li> <li>- 이해관계자 협의 후 목차 등 결정</li> <li>- 자료검증 전문가를 통한 검증 실시</li> </ul>
7차 회의 (6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나리오 워크숍 운영방향, 세부 일정 등 협의</li> </ul>
8차 회의 (6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나리오 워크숍 참여 대상 사전 간담회</li> <li>- 간담회 개최 전 ‘학부모-시민단체 조정회의’ 실시</li> </ul>
9차 회의 (6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원회 사전 협의</li> </ul>
10차 회의 (6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의자료집 작성 방법 협의</li> </ul>
11차 회의 (6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및 2차 숙의 프로그램 세부계획 협의</li> <li>•공론화 검증위원회 검증계획 협의</li> </ul>
12차 회의 (6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및 2차 숙의 프로그램 세부계획 협의</li> </ul>
13차 회의 (7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및 2차 숙의 프로그램 세부계획 협의</li> </ul>

### [소통 분과]

회의 일자	논의 사항
1차 회의 (5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 대응 기본 계획 협의</li> <li>- 보도자료 및 보도계획 수립</li> <li>- 공론화 관련 언론에 투명 신속 전달 원칙</li> </ul>
2차 회의 (5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순회 토론회(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개최 방안 협의</li> </ul>
3차 회의 (5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순회 토론회(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고려사항 검토</li> </ul>
4차 회의 (5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세대 토론회 발제자 선정 협의</li> <li>•국민대토론회 녹화·녹취 등 협의</li> </ul>
5차 회의 (6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토론회 계획 협의</li> <li>- 방송사 선정 및 일정 검토</li> <li>•매체 광고 계획 협의</li> <li>- 라디오, 인터넷 포털, 전광판 광고 검토</li> </ul>

회의 일자	논의 사항
6차 회의 (6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계획 협의</li> <li>•TV토론회(YTN) 일정 협의</li> <li>•시나리오 워크숍 보도자료 배포</li> </ul>
7차 회의 (6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순회 토론회(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추진 계획(안) 검토</li> </ul>
8차 회의 (6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화 의제 발표 언론 브리핑 협의</li> <li>•위원장 언론 인터뷰(KBS) 계획 협의</li> </ul>
9차 회의 (6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변인 언론 인터뷰(KTV) 계획 협의</li> </ul>
10차 회의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토론회(YTN) 세부진행 사항 협의</li> </ul>
11차 회의 (7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 언론 인터뷰(YTN) 계획 협의</li> </ul>
12차 회의 (7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 간담회 계획 점검</li> <li>•위원장 언론 인터뷰(KBS 라디오) 계획 협의</li> </ul>
13차 회의 (7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토론회(SBS) 계획 협의</li> <li>•2차 숙의토론회 KTV 생중계 협의</li> </ul>

## 4. 공론화 의제 협의회

### 가. 공론화 의제 협의회 구성

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6.16~17)에서 작성한 공론화 의제(비전+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 의제별 대표들로 구성된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 2-4** 공론화 의제 협의회 구성

구분	공론화위원회	의제별 대표
구성	숙의분과 위원 2인	4개 의제별 각 2인 (총 8인)

## 나. 공론화 의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의제 협의회는 의제간 참여하게 대립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별 대표들의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개의 의제 대표들은 공론화 전 과정(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 1·2차 숙의토론회)에서 숙의자료 제공 및 발표, 질의응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공론화 범위에 대한 의제 도출 단계부터 시민참여단의 숙의 종료시까지 계속 함께하였다. 의제 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만의 주관 운영이 아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공론화 추진이 가능했으며, 각 의제별 발표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지원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공론화 의제 협의회 요청을 반영하여 만든 SBS 생방송 “대입 제도개편 특집토론 - 우리 교육의 미래는?(7.17일)”은 시민참여단 구성 직후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큰 도움을 주었다.

**표 2-5** 공론화 의제 협의사항

일자	협의 사항
1차 회의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li> <li>▶ 국민대토론회 참가 및 의제 설명</li> </ul>
2차 회의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의 일정 협의</li> <li>▶ 숙의자료 이러닝 학습자료 제작</li> </ul>
3차 회의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의자료집 검증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li> <li>▶ 시민참여단 1차 숙의토론회 일정 안내</li> <li>▶ 국민소통 플랫폼 의제 질의 답변 협조 요청</li> </ul>
4차 회의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의자료집 최종본 확정</li> <li>▶ 공론화위원회 주관 토론회 요청(SBS 특집방송)</li> </ul>
5차 회의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의제별 강의자료 자료집 제작</li> <li>▶ 숙의자료 이러닝 학습 지원</li> </ul>
6차 회의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일정 협의</li> <li>▶ 공론화 의제별 근거 자료집 발간</li> </ul>
7차 회의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숙의토론회 의제 발표 및 상호토론 등</li> <li>▶ 2차 숙의토론회 운영 협조 요청</li> </ul>

## 5.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는 공론화과정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검증위원회를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때와 달리 새롭게 도입된 시나리오워크숍 방식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구성되었다. 학생·교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제를 도출하는 첫 단계로서 엄정한 현장 중심 검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6**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원	김주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위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검증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운영 방식,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검증을 위하여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공론화 검증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시민참여단 숙의 및 조사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등 면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은 한국정책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진행하였고, 검증위원회에는 공론화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였다.

**표 2-7**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검증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현직
총괄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숙의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사	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자문	이용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문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문	최성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III. 공론화 과정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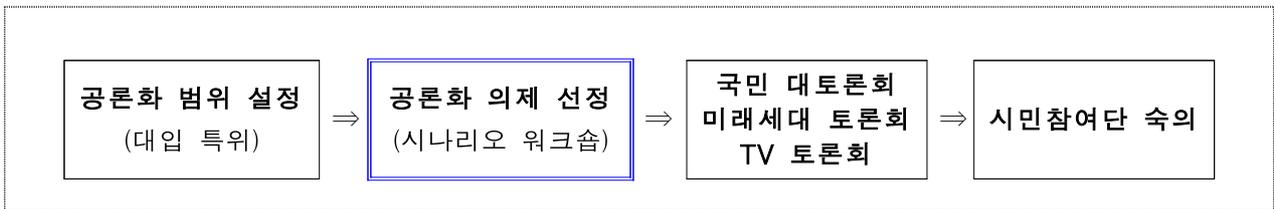
1. 공론화 의제 선정
2. 시민참여단 선정
3. 시민참여형조사 설계 및 진행
4. 숙의 프로그램
5. 대국민 소통



# 1. 공론화 의제 선정

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의 The-K Hotel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서 5월 30일 최종 확정된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설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종적으로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도출하였다.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공론화 의제는 연이어 개최된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숙의 의제로 제공되었다.

**표 3-1** 공론화 의제 도출 및 활용



## 가. 시나리오 워크숍의 개념

시나리오 워크숍은 1990년대 초 덴마크에서 시작된 참여적 의사 결정 방법으로, 주로 지역적, 과학적 이슈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예방이 목적이었다. 참가자들은 주제가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주어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호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각자 자신의 비전과 견해를 발전시킨 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내용과 공유하지 못하는 내용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시나리오들은 참가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예상되는 미래상과 대안적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서술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 나.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으로 총 35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3-2**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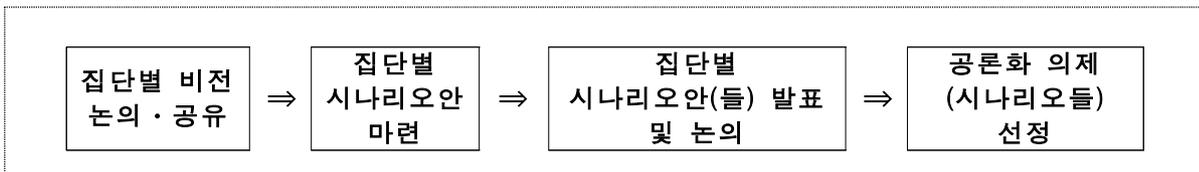
구분	인원수	명단*
학생	7	고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교원(단체)	7	한국교총(김동석), 좋은교사운동(김진훈), 서울 양정고(박윤근),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박정근), 전교조(이현), 경기 현암고(이원재), 부산 장안고(000)
학부모·시민단체	7	정시확대를 위한 학부모모임(박소영),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종배), 전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이태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최은순), 흥사단(한만길), 사교육걱정없는세상(000), 학부모 000
대학관계자	7	대전보건대(김은준), 유한대(김현중), 중앙대(백광진), 연세대(엄태호), 차의과학대(장정현), 부경대(채영희), 전주대(000)
대입전문가	7	한국외대(김사훈),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김정현), 흥익대(김준엽), 부산대(김현민), 행복한교육연구소(박재원), 우리교육연구소(이현), 경남대(000)

\* 성명은 개인정보 공개 동의자들만 공개(학생은 미공개 원칙)

### 다. 공론화 의제 도출

이번 워크숍은 위에 기술한 일반적인 시나리오 워크숍의 개념을 본 주제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참가자들은 기존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이 아닌, ‘대입제도개편’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①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들) 공유, ②공유된 비전(들)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안(들) 마련, ③전체 논의를 통한 공론화 의제 도출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토론을 통해 역할집단별 비전을 도출한 후, 발표 및 전체 협의를 통해 이를 공유하였다. 다음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집단을 재구성한 후, 해당 집단별로 시나리오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체 논의를 거쳐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였다.

**표 3-3** 공론화 의제 도출 절차



### 라.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 팀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

워크숍은 갈등해결&평화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워크숍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참가자들이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가자 상호간 소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첨예하지 않은 공론조사와 달리 시나리오 워크숍은 해당 주제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역량 있는 퍼실리테이터 필요하였고, 기존 퍼실리테이터 중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7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에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6.15)도 실시하였다.



## 마.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절차

### (1) 워크숍 1일차

워크숍 1일차 프로그램은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시나리오 개념 및 사례 소개’, ‘워크숍 목표, 진행과정 소개, 토의기본규칙’, ‘교육 미래 비전과 방향성 1’ ‘교육 미래 비전과 방향성 2’, ‘기준에 맞는 제안 만들기 워밍업’으로 구성되었다.

#### (가)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시나리오 개념 및 사례 소개

이 세션은 현행 대입제도와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화 범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 간 대입제도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론화 의제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고,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를 시민참여단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의 개념은 일반 참여자에게 생소한 개념으로서, 이번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입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기존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활용되던 시나리오 워크숍의 개념과 다르기에 정확한 설명을 통해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해 참가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나) 워크숍 목표, 진행과정 소개, 토의기본규칙

워크숍의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참가자 상호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1박2일간의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의 역할별 모임, 혼합 모임별 대화와 토론시 적용할 기본 규칙 도출 등 논의 과정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일

때는 이해관계의 핵심 이슈로 논의를 시작할 경우 갈등 구조가 심화되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설명하여 다른 참가자를 논쟁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함께 수행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또한 핵심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은 기본 규칙들을 공동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상호간 이해와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다) 교육 미래 비전과 방향성 1

- ❖ 내가 바라는 10년 뒤 미래 교육의 모습은?
- ❖ 현재 우리의 교육 환경은?
- ❖ 바라는 미래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기준과 방향성이 되는 교육의 미래 비전을 도출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상호 의견이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혼합별 모임에서 함께 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간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통해 보다 풍성한 대화와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한 개편 방안의 기술이 아닌 교육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여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모임별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전체 발표 후 이를 토대로 참가자 전체가 모여 질문에 맞춰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라) 교육 미래 비전과 방향성 2

- ❖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하는 기준

혼합 모임으로 구성하여 (5명/7조)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다 많은 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과정으로, 10분간 논의 후 2명이 다른 조로 이동하여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4번 진행하였다. 4번의 혼합 모임 논의 후 전체 참가자들에게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기준에 대해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고,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적고, 다른 참가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완성하였다.

## (마) 기준에 맞는 제안 만들기 워밍업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성 전 참가자 간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 제안을 위한 명확한 관점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나리오 워크숍 2일차에 진행될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업은 개인별 의견의 나열이 아닌,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의견을 모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팀 작업이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성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인 3가지 쟁점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거쳐 2일차 시나리오 작성시 함께할 동료를 찾고, 각 쟁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논의의 범위는 공론화 범위인 3가지 쟁점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간 비율,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으로 한정하였다. 혼합모임(5인/7조)으로 참가자들이 균등한 시간을 부여 받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주장 및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 피실리테이터가 기록하였다.

## (2) 워크숍 2일차

워크숍 2일차 프로그램은 ‘시나리오 만들기’, ‘평가기준 논의’, ‘세부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발표 및 선정’으로 구성되었다.

### (가) 시나리오 만들기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기초한 개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진 참가자별 팀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에게 제안할 최종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1일차에 논의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맞춰 개인별 시나리오를 대형포스트잇에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역할별 모임(7인/5조)에서 발표하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모을 수 있는지 참가자에게 확인하고,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모임별 복수의 시나리오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완결성과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시나리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나) 평가기준 논의

평가 기준 및 선정할 시나리오 개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진행자가 제시한 기준에 대한 참가자들의 수용 여부 확인 후 시민참여단에 제출할 시나리오 선정 개수 및 평가 기준을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가는 크게 ‘제안된 내용의 큰 방향성으로는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논의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었다. 세 가지 공론화 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시민참여단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소수의 선택일지라도 다른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가진 것이라면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의를 범위를 찬반양론하지 않고,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각 시나리오에 대한 참가자들의 수용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를 수준’을 어떻게 할지 참가자들에게 물어보고, 네 번째 수준 즉 ‘의구심 강함. 하지만 합의를 강하게 저지하지는 않겠음’ 수준일 때로 하자는 동의를 받았고, ‘동의를 수준’ 중 ‘전적으로 반대. 더 논의가 필요함’의 의견이 없는 경우는 최종 시나리오로 시민참여단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동의를 수준’ 중 ‘전적으로 반대. 더 논의가 필요함’이 나올 경우 바로 제외하지 않고 논의를 거쳐 다시 동의를 묻기로 하였다.

동의를 다섯가지 수준을 서로 다른 색깔(녹색, 연파랑, 노랑, 핑크, 주황)로 표현할 수 있게 색깔별 종이 1장씩을 참가자에게 배분하였으며, 의사결정시 각 시나리오별 동의 수준을 색깔별 종이를 들어서 표현하였다.

**표 3-4** 평가 원칙 중 동의의 수준

 (녹색)	동의
 (연파랑)	의구심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동의
 (노랑)	의사결정하기 전 질문이 있음
 (핑크)	의구심 강함. 하지만 합의를 강하게 저지하지는 않겠음
 (주황)	전적으로 반대. 더 논의가 필요함

#### (다) 세부 시나리오 작성

개인별, 역할모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체에 발표하는 시간을 거쳐, 유사한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끼리 팀을 이뤄 상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참가자간의 팀 분류는 참가자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차적으로 분류된 팀에서 시나리오 작성 중 견해가 다를 경우는 별도의 팀을 만들거나, 참가자 개인이 별도의 시나리오 상세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시나리오 발표 및 선정

시민참여단에게 제안할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참가자들이 작성한 4개의 상세 시나리오 발표 후 각 시나리오를 시민참여단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지에 대해 기존에 정한 평가 원칙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1차 투표 결과 1안, 2안, 3안은 동의하지 않는 단계인 ‘전적으로 반대. 더 논의가 필요함’ 이 한 표도 나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1차 투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단계인 ‘전적으로 반대. 더 논의가 필요함’ 의 의견이 4표가 나온 4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 후 4안에 대해서만 2차 투표 실시하였다. 2차 투표 결과 4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단계인 ‘전적으로 반대. 더 논의가 필요함’ 의 의견이 한 표도 나오지 않아 4안도 시민참여단에게 최종 시나리오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의 의의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생들과 2022학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르게 될 중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공론화 의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대입제도의 비전,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 적용 가능한 대안 등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숙의(熟議)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공론화 의제 1

###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미래교육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외부의 영향이 최소화 된 본인의 학습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여야 한다.

###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型的 균형을 유지한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의 선발 인원을 45% 이상 (수시이월인원 제외) 선발하여야 한다. (단, (수시)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김.) 그 이유는 상위권 대학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이 거의 없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내신 중·하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은 거의 정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급격히 축소되고 우수한 학업능력을 가진 n수생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재학생이 체감하는 정시 비율은 사실상 10% 이내이다.

####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수능 평가 방법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여 수능은 변별력 상실로 대입선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 공론화 의제 2

###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더 이상 성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에 얽매어 다수 학생을 좌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 서열보다 학습자의 학업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학교 수업보다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수업이 가능해진다.

###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정시)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특성(수도권과 지방)과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능 상대평가가 변별력 확보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나 상대평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교실 수업, 학생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교실 수업,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교실 수업 등 심각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어 있어 수학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행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공론화 의제 3

###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가 전개될 것이다. 대학은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한 역량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획일적이지 않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운영하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행할 책무를 지닌다.

###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전형제도 유형별 비율의 설정은 대학의 설립유형(국·공립/사립), 설립 취지 및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

####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변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설정 여부는 대학의 특성 내지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수준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관련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을 권장한다.

## 공론화 의제 4

###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확대와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축소 및 공정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여야 한다.

###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며,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각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 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부적 비율은 각 대학의 여건을 존중하여 대학이 결정하게 한다.

####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독자적인 전형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 2. 시민참여단 선정

### 가. 시민참여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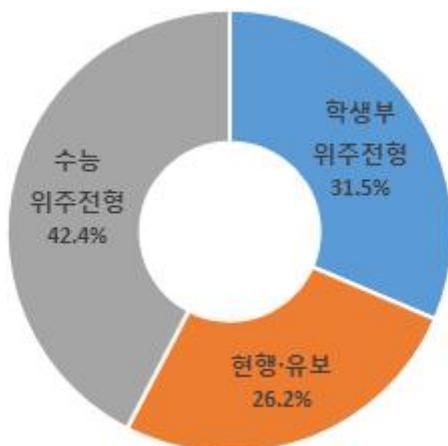
공론화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내외 사례<sup>1)</sup>를 참고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하게 될 시민참여단 선정방식과 규모를 확정했다. 대국민조사 응답자 20,000명 중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6,636명이었다.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층화추출을 위한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을 사용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주민등록 기준)들을 지역(16개 시도)·성·연령으로 3차원 층화(160개 층)한 후, 비례배분한 20,000명을 층화 무작위 추출하여 대국민조사 표본을 구성하고, 대국민조사 표본(20,000명)을 대입제도 의견(학생부위주전형 확대/현행유지 및 판단유보/수능위주전형 확대)·성·연령으로 3차원 층화(30개 층)한 뒤, 비례배분한 550명을 층화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이다.

**그림 3-1** 시민참여단(550명) 구성 현황

대입제도 확대의견(학생부/수능/현행·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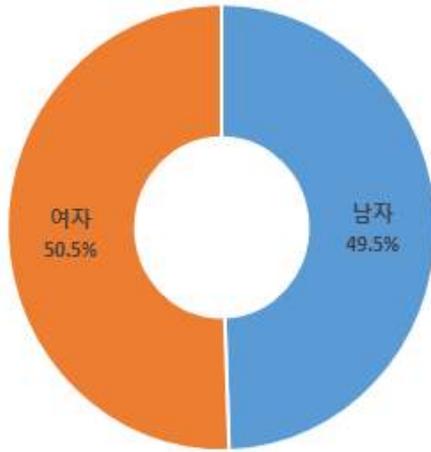
(단위: %)



1) 미국 412명(넥스트 캘리포니아, '11.6월), 일본286명(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관한 공론조사, '12.8월), 국내 173명(사용후 핵연료, '15.3월), 471명(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7.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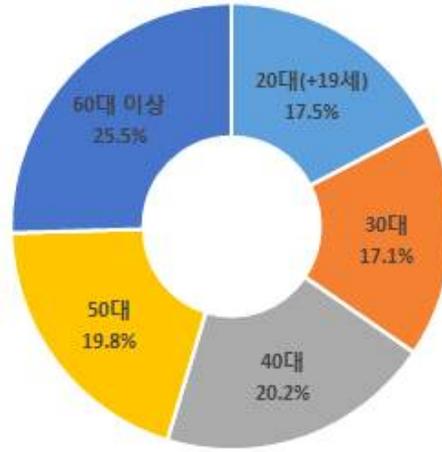
성별 구성현황

(단위: %)



연령별 구성현황

(단위: %)



### 3. 시민참여형조사 설계 및 진행

#### 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개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의 주요 목적은 전체 국민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의견을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파악하는 동시에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아울러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활용의 목적이 있었다.

대국민조사 문항은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과 1차 속의 토론회, 2차 속의 토론회 참석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대국민조사 문항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적용한 층화확률추출의 층화기준도 염두에 둔 것이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 대국민 조사 응답자 20,000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 550명을 2018년 7월 10일 선정 완료하였다.

## 나.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현황

대국민조사는 전화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휴대전화 90%, 집전화 10% 병합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실사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40대 이상 여성의 접촉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전화번호를 추가 투입하였다. 최종 응답자의 휴대전화 및 집전화 구성비율은 <표 3-16>과 같다.

**표 3-6** 최종 응답자 휴대전화 및 집전화 구성 비율

구분	목 표	완 료	구성 비율
전 체	20,000명	20,000명	100.0%
휴대전화	18,000명	17,817명	89.1%
집전화	2,000명	2,183명	10.9%

대국민조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2018. 4. 30. 기준 주민등록)들을 지역(16개 시도<sup>2)</sup>), 성별, 연령대(19세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범주를 기준으로 160개 층을 구성한 후, 층별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20,000명을 비례배분하여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 대국민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85,39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20,000명을 조사하였다. 휴대전화의 경우 KT, SKT, LGU+에서 제공받은 가상번호(안심번호라고 부르기도 함) 95,410개를 사용하여 13,135명을 조사하였으며, RDD(random digit dialing)방법으로 추출된 49,985개를 사용하여 4,682명을 조사 완료하였다. 집전화의 경우 전체 RDD방법으로 추출된 39,995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2,18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에 투입되는 전화번호 회선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의 거주지역과 성, 연령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9,070개의 번호를 투입한 후, 지역, 성, 연령대에 따른 층별 조사완료 현황을 파악하여 각 층별로 부족한 표본크기의 2~3배수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3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가상번호를 투입하였고, 가상번호를 다 소진한 이후에는 RDD방법으로 부족한 표본크기를 채우는

2) 세종은 충남에 포함

방식<sup>3)</sup>으로 진행함으로써 일반적인 전화조사에 비해 높은 접촉성공률과 응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표 3-7>은 단계별 투입된 휴대전화와 집전화 회선 수, 응답자수와 조사기간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3-7** 전화조사 단계별 투입 회선 수와 조사기간

조사방법	단 계	투입 회선 수	응답자 수	조 사 기 간	최대컨택수
휴대전화	1단계	39,070개	5,726명	6.23.(토)~7.2.(월)	26회
	2단계	20,930개	2,972명	6.28.(목)~7.2.(월)	19회
	3단계	35,410개	4,437명	7.1.(일)~7.6.(금)	16회
	4단계(RDD)	49,985개	4,682명	7.3.(화)~7.6.(금)	8회
집전화 (RDD)	1단계	6,000개	488명	6.20.(수)~6.25.(월)	21회
	2단계	2,000개	113명	6.28.(목)~7.4.(수)	17회
	3단계	29,956개	1,568명	7.1.(일)~7.6.(금)	6회
	4단계	2,039개	14명	7.3.(화)~7.6.(금)	1회

비접촉이나 무응답 등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경우 수신자가 “대입제도공론화위”라는 휴대전화 발신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발신번호를 알려주고 조사 참여를 유도하는 언론홍보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재통화(call-back)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휴대전화와 집전화 모두 최대 26회까지 재통화를 실시하였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진 대국민조사 접촉성공률과 응답률을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구분해 보면 <표 3-8>과 같다. 접촉성공률은 휴대전화 58.9%와 집전화 56.9%이었고, 응답률은 휴대전화 23.8%와 집전화 14.3%로 일반적인 전화조사보다 접촉성공률이나 응답률이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접촉성공률은 사용된 전체 전화회선 중 접촉에 성공한 비율을 나타내고, 응답률은 전화통화에 성공한 경우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나타낸다. 참고로 제시된 접촉성공률과 응답률을 곱하면 APPOR(미국여론조사협회)에서 사용하는 RR4(response rate type 4)에 해당한다.

3) 사전에는 가상번호만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선거 후 전화조사의 피로감, 조사사레비 등의 사유로 계획보다 응답자 수가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RDD방법 투입을 결정하였다.

**표 3-8** 대국민조사 전화조사 접촉성공률 및 응답률

구 분	응답성공	접촉 성공률	응답률 (협조율)	응답거절	접촉	접촉실패
휴대전화	17,817	58.9%	23.8%	56,911	74,728	55,344
집전화	2,183	56.9%	14.3%	13,086	15,269	13,859
합계	20,000	58.6%	22.2%	69,997	89,997	69,203

대국민조사 최종 응답자 20,000명의 성별, 연령대,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결과적으로 대국민조사의 최종 응답자는 층별(성, 연령, 지역) 표본설계를 모두 달성하였다. 또한 대국민조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의견은 학생부위주전형 확대 31.5%, 수능위주전형 확대 42.0%, 현행 유지 및 판단유보는 2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입제도의 의견을 성별, 연령대,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표 3-10>와 같다.

**표 3-9** 대국민조사 최종 응답자 현황

(단위: 명)

지 역	계	20대(+1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 국	20,000	1,831	1,648	1,754	1,673	2,049	1,985	2,012	1,979	2,268	2,801
서울	3,901	363	367	367	366	378	383	355	371	430	521
부산	1,373	120	108	111	106	126	126	135	144	178	219
대구	957	92	78	77	74	96	98	98	102	107	135
인천	1,137	109	100	105	99	119	116	120	118	114	137
광주	547	55	50	48	47	58	59	53	54	54	69
대전	572	58	52	51	49	59	60	56	57	59	71
울산	440	45	35	42	38	47	46	50	47	42	48
경기	4,899	463	421	462	444	547	532	501	481	478	570
강원	605	53	42	43	40	58	54	65	62	84	104
충북	614	56	46	51	46	61	57	64	61	77	95
세종·충남	913	77	66	85	77	97	85	90	82	113	141
전북	714	61	53	51	48	70	65	72	69	98	127
전남	736	58	49	51	46	70	60	79	70	108	145
경북	1,052	87	69	80	72	100	91	111	106	147	189
경남	1,291	112	92	109	101	135	127	137	131	152	195
제주	249	22	20	21	20	28	26	26	24	27	35

**표 3-10**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대국민조사)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학생부위주 전형 확대	현재수준유지· 판단유보	수능위주 전형 확대
전체		20,000	31.5	26.5	42.0
성	남자	9,914	32.7	23.1	44.2
	여자	10,086	30.3	29.7	40.0
연령대	19~29세	3,479	28.0	31.2	40.8
	30대	3,427	30.6	23.4	46.0
	40대	4,034	32.6	19.5	47.9
	50대	3,991	34.0	21.7	44.3
	60세 이상	5,069	31.5	34.7	33.8
지역	서울	3,901	25.6	24.2	50.2
	부산	1,373	33.4	26.9	39.7
	대구	957	29.8	29.0	41.2
	인천	1,137	35.9	27.0	37.1
	광주	547	33.8	25.1	41.1
	대전	572	30.4	25.2	44.4
	울산	440	36.2	27.0	36.8
	경기	4,899	31.5	24.4	44.1
	강원	605	37.0	28.5	34.5
	충북	614	35.8	28.5	35.7
	세종·충남	913	33.3	29.7	37.0
	전북	714	34.9	29.4	35.7
	전남	736	36.8	30.9	32.3
	경북	1,052	31.8	31.0	37.2
	경남	1,291	31.5	27.6	40.9
	제주	249	30.2	25.6	44.2

**라. 시민참여단 1~3차 조사**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 전·후 비교(숙의효과,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추이 등), 최종 결과 등을 도출하기 위해 대국민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시민참여단 55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숙의 토론회(2018. 7. 14.~7. 15.)에 참석한 512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숙의 토론회(2018. 7. 27.~7. 29.)의 첫째 날에 2차 조사(491명)를, 마지막 날에 3차 조사(490명)를 실시하였다.

1차~3차 설문조사는 향후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과 설문문항의 완성도를 높여야 했다. 이를 위해 조사분과 회의 및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차~3차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길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그 결과, 3차에 걸친 설문조사에는 쟁점가치판단(의제지지 중요요소), 대입제도 관련 지식수준 등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도 있고, 인구사회특성, 공론화 과정 평가 등 각 차수에만 해당하는 조사 항목도 있다. 각 차수별 설문지는 의제별 형평성을 위하여 “가, 나, 다, 라” 형 4가지로 제작하여 의제의 순서가 순환되도록 하였다.

1차 조사는 숙의 전 시민참여단 인식수준 확인, 숙의 전·후 비교 등을 목적으로 1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항목은 의제별 지지정도를 묻는 4개 문항과 쟁점가치판단, 입시제도 방향, 정보관심도 및 정보원의 신뢰도를 묻는 4개 문항, 대입제도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9개 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는 자료집, 이러닝 등 학습 효과 확인, 시민참여단 개개인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숙의 토론회 1일차(2018. 7. 27.)에 진행되었다. 조사 항목은 의제별 지지정도를 묻는 4개 문항, 쟁점가치판단, 입시제도 방향, 정보관심도, 학습수준, 의제별 공감정도 등을 묻는 9문항과 대입제도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9문항, 학력, 직업 등 기본 통계활용을 위한 6개 문항 등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차 조사는 최종 의제별 지지정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위한 목적으로 2박 3일 2차 숙의 토론회 3일차(2018. 7. 29.)에 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 의제별 지지정도, 쟁점가치판단,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존중 정도 9개 문항과 대입제도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9문항, 정치적 태도와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9개 문항(주관식 1개 포함), 부가질문 및 중장기 방향 6개 문항(주관식 1개 포함) 등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4. 속의 프로그램

### 가. 속의 추진 방향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 및 보강속의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속의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시민참여단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속의가 이루어지도록 1차속의(권역별)와 2차속의(종합)로 나누어 심층적인 속의가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둘째, 시민참여단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분임별 토의를 대폭 강화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깊이 있는 상호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셋째, 대입제도개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의 의견을 속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국민대토론회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속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넷째, 속의토론회 과정에서 현장성을 강화하여 시민참여단이 직접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가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질문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였다.

### 나. 속의프로그램 주요 내용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총 속의기간은 2018. 7. 10.부터 7. 29. 까지 약 3주(총 20일)였다. 속의 프로그램은 시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프로그램과 일반국민 직접 참여한 속의 결과를 시민참여단이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표 3-11** 속의프로그램 주요 내용

기본 프로그램(시민참여단)	보강 프로그램(대국민소통, 시민참여단)
1차속의 속의자료집 이러닝 및 의제별 전용Q&A 2차속의	미래세대 토론회(권역별) 국민대토론회(권역별) TV토론회(6회) 국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 (1) 1차 숙의 토론회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1차 숙의토론회는 7.14.(토) 서울과 광주, 7.15.(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1차 숙의 토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 소개 내용이 주를 이루는 통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1차 숙의토론회로 대체하여 시민참여단이 공론화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렸으며, 4대 권역별로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토론회를 분산 개최하여 각 지역별로 소규모의 분임토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숙의토론회의 추진방향은 “정보공유와 브레인스토밍” 으로서,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기본지식과 의견 공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먼저, 시민참여단에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그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론화의 의의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추진 경과, 대입제도,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 청취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이 습득·공유된 기본지식을 토대로, 공론화와 의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분임토의를 운영하였다.

**표 3-12** 1차 숙의토론회 주요일정

시간		내용
11:15~11:40	25	“공론화의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11:40~12:25	45	“대입제도의 이해” (발표 및 질의응답)
13:25~15:25	120	“공론화 의제 : 4개의 시나리오” (발표 및 질의응답)
15:40~17:10	90	분임토의(브레인 스토밍) 및 결과 공유

참고로, 1차 숙의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50명 중 512명이 참석하여 93.1%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는데 서울은 95.0%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광주는 90.9%, 부산은 90.9%, 대전은 90.0%의 참여율을 보였다.

**표 3-13** 1차 숙의토론회 참여자 현황

구분		모집(명)	참석(명)	참여율(%)
7월 14일	소계	358	338	94.4
	서울	303	288	95.0
	광주	55	50	90.9
7월 15일	소계	192	174	90.6
	부산	132	120	90.9
	대전	60	54	90.0
종합		550	512	93.1

아울러, 참석자들은 분임토의 시 “시민참여단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숙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충실한 숙의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것” 이라고 시민참여단으로서의 사명감과 각오를 밝혔다.

**< 1차 숙의토론회 분임토의 결과 조별 발표내용 >**

- (대전토론회, 1조) “시민참여단으로 대표성을 띠고 모였는데 책임의 막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고요.”
- (서울토론회, 15조) “경청하는 입장을 먼저 갖추자는 것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의견”
- (부산토론회, 6조)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 (광주토론회, 2조) “다음 숙의 때까지 공부를 더 하고 노력하시겠다고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2) 2차 숙의 토론회**

1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게 된 시민참여단은 그 후에도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각종 토론회 영상자료 시청 등을 통해 2박3일로 이루어지는 2차 숙의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참고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공론화 의의, 대입제도 및 공론화 의제별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숙의자료집을 1차 숙의토론회 이전에 발송하여 시민참여단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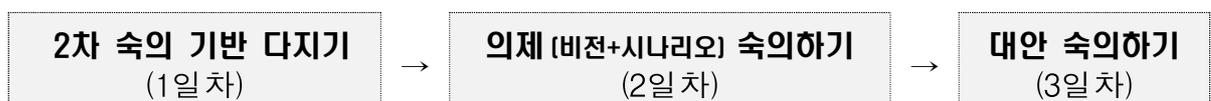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이러닝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대입제도 개편 국민 소통 플랫폼(모두의 대입 발언대 www.edutalk.go.kr)의 시민참여단 전용 게시판에 탑재하여 모든 시민참여단이 2차 숙의토론회 참석 이전에 학습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단 Q&A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민참여단의 의문 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하였다.

1차 숙의토론회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의견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최종 의견 제시 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의제 분석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제와 대안 숙의”에 중점을 두고 설계·운영되었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다 충실한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의제에서 제안하는 비전 및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의제 검토를 통해 숙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의제별 심층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며, 현실 적용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의제에 대한 발표,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발표자 상호토론, 분임 및 전체 토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 2차 숙의토론회의 숙의 단계 >



첫날인 7월 27일에는 “2차 숙의 기반 다지기”가 이루어졌다. 1차 숙의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 시민참여단은 분임 토의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참여자와 공유하였다.

**표 3-14** 7.27.(금) : 2차 숙의 기반 다지기 - 의제 (비전+시나리오) 나누기

<b>&lt;세션 1&gt; 출발점 나누기 - 의제 (비전+시나리오) 검토하기</b>		
20:05~20:55	50'	분임 토의
21:15~21:45	30'	전체 나눔 : 분임 나눔 결과

둘째 날인 7월 28일부터는 “의제(비전과 시나리오) 숙의하기” 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민참여단은 의제 발표를 청취하고 분임토의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의제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제 발표자간의 상호토론 청취를 통해 각 의제의 장점과 단점, 22학년도 대입제도에 각 의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3-15** 7.28.(토) : 의제 (비전+시나리오) 숙의하기

<b>&lt;세션 2&gt; 의제 (비전+시나리오) 이해하기</b>		
09:10~10:40	90'	의제 별 발표
11:00~14:25	135'	분임토의
14:50~17:10	140'	의제 별 대표자와 질의응답
<b>&lt;세션 3&gt; 의제 (비전+시나리오) 심층 토의하기1</b>		
18:20~20:10	110'	의제 상호토론
20:30~21:40	70'	분임토의

마지막 날인 7월 29일에는, 의제 숙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의제를 검토하는 “대안 숙의하기” 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참여단은 각 의제의 타당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친 후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 의제를 평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표 3-16** 7.29.(일) : 대안 숙의하기

<b>&lt;세션 4&gt; 의제 (비전+시나리오) 심층 토의하기2</b>		
09:00~10:20	80'	발표자와 질의응답(각 의제당 20분)
10:45~12:50	115'	분임토의
<b>&lt;세션 5&gt; 대안 선택하기</b>		
13:55~14:20	25'	전체 나눔 : 의제(비전+시나리오)에 대한 종합 의견
14:20~15:00	40'	의제별 마무리 발언
16:00~16:20	20'	전체나눔 : 참여소감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 490명, 모더레이터 50명, 진행요원 71명, 위원회 및 지원단 26명, 발표자 및 참관인 23명, 기자단 50여명 등 등 총 7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18시 50분부터 7월 29일(일) 16시 20분까지 2박 3일간 교보생명 계성원(천안시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1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512명 중 21명이 개인 일정변경 등으로 불참하고 1명이 건강성 이유로 조기 퇴소한 가운데 총 490명이 참석하여 모집 인원 대비 89.1%의 참석율을 기록하였다.

**표 3-17** 2차 숙의토론회 시민참여단 참석 현황

모집 (명)	1차 참석 (명)	2차 참석 (명)	모집 대비 1차 참석률 (%)	모집 대비 2차 참석률 (%)	1차 참석 대비 2차 참석률(%)
550	512	490	93.1	89.1	95.7

2차 숙의토론회는 발표 130분, 질의응답 220분, 상호토론 110분, 분임토의 370분, 전체나눔 75분 등 총 905분으로 구성되어, 설문조사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도 대략 15시간 정도 집중적인 숙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2차 숙의토론회 마지막날 개최된 시민참여단 합동 인터뷰와 참여소감 전체나눔에서 참여 계기와 시민참여단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 공론화 과정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해 솔직하고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 < 1차 숙의토론회 참여 소감 >

### ▶ 참여 계기 (시민참여단 합동인터뷰, '18.7.29.)

“내 자식이 대학입시를 치른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입시에만 매달리지 않고 공부를 충실하게 하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 참여했다”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시민참여단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 (세션5 참여소감 전체나눔, '18.7.29.)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대표성이 있다. 제도를 만드는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놀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소중한 것도 알게 되었다” (8조)

“전문성이 없는 시민참여단이었는데 토론이 활발한 것을 보고 놀랐다. 국민 수준이 높아진 것을 보고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느꼈다.” (31조)

“정말 잘 될까’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참여하며 관심 가지게 됐고, 공론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좋았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36조)

### ▶ 공론화 과정에서 느낀 점 (시민참여단 합동인터뷰, '18.7.29.)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먼저 살아오신 분들의 지혜부터 방금 수능을 마친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시각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제로 처음에 들어올 때와 마지막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각 의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각각의 안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들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세션5 참여소감 전체나눔, '18.7.29.)

“한국의 민주주의를 느꼈다.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서 놀라웠고, 정부에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는 것이 좋았다” (33조)

“민주주의를 글로만 배웠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은 처음 본다” (45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안건이 채택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다. 민주주의적 토론과정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37조)

“여러 연령대가 모였는데 3일만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 고등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8조)

### (3) 속의자료집

시민참여단의 속의에 기본이 되는 속의 자료집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공론화의 의의, 대학입시제도의 이해, 공론화의 추진 경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자료는 공론화 의제별 그룹에서 작성하였는데 속의자료집 검증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검증시에는 논리 및 주장에 대한 검증은 제외하고, 데이터와 사실에 대한 검증만을 실시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증 회의시 자료의 수정, 보완에 대한 공론화 의제 대표들간 합의는 없었으나, 검증 이후 의제별 설명자료의 수정·보완이 있어 일부 의제에서 반발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속의자료집은 제1장 공론화 과정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제2장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이해, 제3장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경과와 제4장 공론화 의제 범위와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는데, 4장의 경우 4개 의제별 설명자료 순서를 달리하여 총 4개의 버전으로 제작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공론화 과정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1
1. 공론화 과정 이해	3
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5
제2장.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이해	7
1. 대학입시제도 변화 경과	9
2. 전형 대학입시제도 운영 현황(대학)	14
3. 전형 대학입시제도 운영 현황(전문대학)	28
제3장.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경과	43
1.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발안 발표	45
2.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47
3.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51
제4장. 공론화 의제 범위와 시나리오	56
1. 4개 공론화 의제 주요 내용	57
2. 공론화 의제 1 설명자료	63
3. 공론화 의제 2 설명자료	87
4. 공론화 의제 3 설명자료	113
5. 공론화 의제 4 설명자료	139
부록 1   교육부의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부록 2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설정」	

#### (4) 이러닝 학습자료 제공 및 시민참여단 전용 Q&A

시민참여단 이러닝 학습자료는 숙의자료집 책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시민참여단이 개인별 아이디를 부여받아 이러닝 학습을 진행하고 진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C, 태블릿, 휴대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7.11일 오픈하였다.

이러닝 학습자료는 숙의자료집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성우의 음성으로 시민참여단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총 8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러닝 강의는 1강 공론화 과정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2강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이해, 3강.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경과, 4강. 공론화 의제 범위와 시나리오를 통해 공론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또한 입시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5강~8강에서는 4개 의제별 설명자료를 의제측에서 받아 동영상 강의를 구성하여 의제별 주장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강은 7.11일, 2~4강은 7.13일에 탑재하여 시민참여단이 1차 숙의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5~8강은 7.17일에 탑재하여 1차 숙의 이후 2차 숙의 전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닝 학습자료 강의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하여 의제별 전문가 3~4명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메뉴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이 궁금해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3-18** 이러닝 학습자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이수율
1강. 공론화 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과정 이해</li> <li>▶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역할</li> </ul>	98
2강. 대학입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시제도 변화 경과</li> <li>▶ 현행 대학입시제도 운영 현황(대학)</li> <li>▶ 현행 대학입시제도 운영 현황(전문대학)</li> </ul>	97
3강. 공론화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발표</li> <li>▶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li> <li>▶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li> </ul>	97
4강. 공론화 의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공론화 의제 주요 내용</li> </ul>	100
5강. 공론화 의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의제 1 설명자료</li> </ul>	98
6강. 공론화 의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의제 2 설명자료</li> </ul>	98
7강. 공론화 의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의제 2 설명자료</li> </ul>	98
8강. 공론화 의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의제 2 설명자료</li> </ul>	98

## 5. 대국민 소통

### 가. 목적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위한 숙의 프로그램 못지않게 대국민 소통을 위한 숙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여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

### 나. 대국민소통 프로그램 주요 내용

#### (1) 미래세대 토론회

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숙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대입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미래세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2018년 6월 21일 광주(호남권, 제주)를 시작으로 6월 26일 대전(충청권), 6월 27일 서울(수도권, 강원), 6월 28일 부산(영남권)을 순회하며 총 4차례 개최되었다.

**표 3-19** 「미래세대 토론회」 개최 현황

지역	일자 / 시간	장소
호남권, 제주	'18.6.21(목) / 14:30~19:00	전남대학교 본관 108호 세미나실(광주)
충청권	'18.6.26(화) / 14:30~19:00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 1층 컨퍼런스홀(대전)
수도권, 강원	'18.6.27(수) / 14:30~19:00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 후생관 2층 컨벤션홀(서울)
영남권	'18.6.28(목) / 14:30~19:00	부산대학교 본관 3층 세미나실(부산)

토론회에는 호남권·제주 61명(중·고생 56명, 대학생 5명), 충청권 63명(55명, 대학생 8명), 수도권·강원 74명(중·고생 64명, 대학생 10명), 영남권 68명(중·고생 60명, 대학생 8명) 등 총 266명(중·고생 235명, 대학생 31명)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선정 단계부터 신경을 썼다. 중·고생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학교 소재지, 학교급, 학교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당 1~2명씩 225개교에서 선정하였고, 대학생은 공개모집을 통해 학교 소재지, 입학경로(수시 / 정시전형) 등을 고려해 24개교에서 선정하였다.

토론 프로그램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역별로 8개(서울은 10개) 분임씩 총 34개 분임조를 편성하여 ‘미래세대가 원하는 고등학교’와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발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분임조는 7~9명(중·고생 각 3~4명, 대학생 1명 원칙)의 학생으로 구성하였고, 분임조당 전문 퍼실리테이터(1명)를 배치하여 원활한 토론을 돕도록 하였다. 총괄 진행(1명)과 분임조 간 진행 조율(1명)도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맡았다.

## 【 참고 】 토론 프로그램

❖ 월드 카페(World Cafe)와 합의형성 워크숍 방법(CWM, Consensus Building Workshop Method) 등 대규모 워크숍 기법 활용

- ☑ (1단계) 공감단계: 워밍업, 토론규칙, 진행방법 안내
- ☑ (2단계) 미래탐색: 청소년의 미래 삶과 학교생활
- ☑ (3단계) 현실검토: 대입제도 개요 설명 및 공론화 의제 소개 / 질의응답
- ☑ (4단계) 대입제도 개편 의견: 우리 의견을 들어주세요!

토론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세부 일정은 ① 국민의례, ② 위원장 인사말씀, ③ 토론 프로그램 운영(1~4단계), ④ 토론 결과 발표 및 공유, ⑤ 소감 청취 및 마무리, ⑥ 참가증서 수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토론 프로그램 1~4단계는, 토론주제, 참여자, 진행방법 등을 공감하는 워밍업 단계(1단계),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의 삶과 학교생활을 탐색하는 단계(2단계), 대입 전문가가 현행 대입제도와 공론화 의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단계(3단계),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는 단계(4단계)로 구성되었다.

**표 3-20** 지역 순회 「미래세대 토론회」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4:30 ~ 15:00	30'	· 토론회 참가등록 및 안내
15:00 ~ 15:02	2'	· 개회 및 국민의례
15:02 ~ 15:06	4'	· 인사말씀
15:06 ~ 15:21	15'	· <b>공감 단계:</b> 워밍업, 토론규칙, 진행방법 안내
15:21 ~ 16:01	40'	· <b>미래 탐색:</b> 청소년의 미래 삶과 학교생활
16:01 ~ 16:15	14'	휴식
16:15 ~ 17:00	45'	· <b>현실 검토:</b> 대입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17:00 ~ 17:50	50'	· <b>대입제도 개편 의견:</b> 우리 의견을 들어주세요!
17:50 ~ 18:00	10'	휴식
18:00 ~ 18:40	40'	· <b>토론 결과 공유</b>
18:40 ~ 18:50	10'	· 소감 청취 및 마무리
18:50 ~ 19:00	10'	· 참가증서 수여 및 기념 촬영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으나, 워밍업 시간(공감단계)이 끝난 후부터는 대부분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웹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사전 보도자료도 작성·배포하였다. 토론회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다양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아울러 참석 학생들에 대한 소감을 듣는 인터뷰(지역별 3~4명)도 진행하였다. 모든 토론회 일정을 마친 후에는 스케치 영상도 제작하였다. 이러한 각종 홍보물과 기록물들은 어느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 국민소통 플랫폼」(edutalk.go.kr)에 게시하였다. EBS 1TV에서는 공론화 다큐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심층 취재하였다.

토론회 결과는 요약정리하여 속의 참고자료로 시민참여단에 제공되었고, 34개 분임조가 토론회 현장에서 작성한 대입개편 의견 발표 자료(34점)는 2차 속의 토론회장에 전시하여 시민참여단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입제도 개편을 어른들끼리 정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준다는 게 참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는 등의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이 직접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이 시민참여단의 속의 과정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행사였다.

### 【 홍보 웹포스터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미래세대 토론회**

목남권, 제주	'18.6.21(목)	14:30~19:00	전남대학교 본관 108호 세미나실(광주)
충청권	'18.6.26(화)	14:30~19:00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센터 1층 컨퍼런스홀(대전)
수도권, 강원	'18.6.27(수)	14:30~19:00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후생관 2층 컨벤션홀(서울)
영남권	'18.6.28(목)	14:30~19:00	부산대학교 본관 3층 세미나실(부산)

※ 사전 신청된 학생만 참석함

### 【 토론 자료실 (녹화영상 게시 화면) 】

모든 대입발언대

토론자료실



## (2) 국민대토론회

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사회적 숙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대토론회는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지역별 순회 토론의 장으로 2018년 6월 26일 대전(충청권), 6월 28일 부산(영남권), 7월 5일 광주(호남권, 제주), 7월 10일 서울(수도권, 강원) 등 총 4차례 개최되었다.

**표 3-21 「국민대토론회」 개최 현황**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충청권	'18.6.26(화)	17:00~19:10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당산홀(대전)
영남권	'18.6.28(목)	17:00~19:30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부산)
호남권, 제주	'18.7.5(목)	17:00~19:30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01호(광주)
수도권, 강원	'18.7.10(화)	17:00~22:00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 106호(서울)

토론회 일정이 장마기간과 겹쳐 서울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행사 당일 비가 내렸다. 당초 토론회 참석 목표인원이 총 800명(지역별 200명)이었으나, 실제 참석인원이 560여 명(서울 200명, 부산 160명, 광주·대전 각 100명)에 그친 것은 당일의 일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토론회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토론 진행은 갈등 의제 관련 토론회 경험이 풍부한 (사)한국갈등학회 추천 전문가가 맡도록 하였고, 각 의제별 발제 및 토론자는 해당 의제를 제안한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발제 및 토론시간도 타이머를 활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토론회는 ① 현행 대입제도 개요 설명 및 공론화 의제 소개, ② 공론화 의제별 상세 발제, ③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기존 토론회가 주로 전문가패널 간 토론이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의제별 발제자와 토론회 참여 일반국민 간의 열린 토론을 위해 일반국민과의 질의응답시간(1부)을 60분 이상 확보되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토론회를 갈무리하는 4차 토론회(서울)는 의제별, 쟁점별 전문가 상호토론시간(2부)을 추가하여 심층적·종합적인 토론회로 장장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표 3-22 「국민대토론회」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부	17:00 ~ 17:01	1'	· 개회 및 국민의례
	17:01 ~ 17:05	4'	· 인사말씀
	17:05 ~ 18:20	75'	· 참석자 소개, 토론규칙 안내 등 · <b>현행 대입제도 개요 설명 및 공론화 의제 소개 (12분)</b> · <b>공론화 의제별 발제 (각 15분, 60분)</b>
	18:20 ~ 18:30	10'	· 휴식(단상 좌석 배치)
	18:30 ~ 19:30	60'	· <b>토론(1): 시민과 열린 토론(질의응답)</b>
	19:30 ~ 19:50	20'	· 휴식(간식)
2부	19:50 ~ 21:15	85'	· <b>토론(2-1): 의제별 상호토론</b> - 의제별 질의답변(각 20분, 80분)
	21:15 ~ 21:25	10'	· 휴식
	21:25 ~ 21:55	30'	· <b>토론(2-2): 쟁점별 상호토론</b> - 전형비율, 수능평가방법, 수시수능최저기준
	21:55 ~ 22:00	5'	· 마무리 및 종료

※ 수도권·강원 외 3개 지역 토론회는 1부만 운영

우리에게 공론화 모델이 낫설고 흔치 않은 만큼, 국민대토론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KBS는 충청권(6.26), 수도권·강원(7.10)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고, EBS 1 TV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다큐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토론회의 전 과정을 심층 취재(녹화, 인터뷰)하였다. 위원회도 영상녹화, 스케치 영상 제작, 사진 촬영 등 보다 많은 과정을 기록하려고 힘썼다. 이렇게 축적된 각종 홍보물, 기록물들은 「대입제도 개편 국민소통 플랫폼」(edutalk.go.kr)에 게시하여 어느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참여단의 숙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되었다.

국민대토론회는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한편, 국민참여형 열린 토론과 전문가 상호토론을 통해 각 의제별 주장 내용이나 장·단점, 도입 시 고려할 점과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론화 과정이었다.

【 홍보 웹포스터 】	【 토론회 사진(위: 서울, 아래: 부산) 】
 <p>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p> <p>대전광역시 교육청 공론화위원회</p> <p>총청권 / '18.6.26(화) / 17:00~19:00 /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강당(대전) 영남권 / '18.6.28(목) / 17:00~19:00 / 부산대 대학본관 대회의실(부산) 호남권, 제주 / '18.7.5(목) / 17:00~19:00 / 전남대 용봉문화관 시청각실 401호(광주) 수도권, 강원 / '18.7.10(화) / 17:00~19:00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106호(서울)</p> <p>사전발수 안내 : ymprov@naver.com(주소, 성명, 학위, 전화번호, e-mail) 팩스: 02-2277-0112 전화: 02-2277-0103 *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http://eduvision.go.kr) 참가신청서 참조</p>	 <p>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p>

### 3. TV토론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TV토론회는 2018년 7월, 한 달 동안 YTN, EBS, SBS에서 ‘공론 의제(시나리오1~4) 집중토론’을 주제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TV토론회의 진행 목적은 첫째, 국민대토론회, 시민참여단 속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TV시청을 통해 공론 의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둘째, TV토론회를 통해 공론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논의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TV토론회 영상은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 (www.edutalk.go.kr)를 통해 시민참여단에 제공되어 속의 참고자료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시민참여단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3-23 TV토론회 현황**

방영 일자	방송사	토론회 제목
2018. 7. 7.	YTN	YTN특별토론 <우리 아이들의 대학입시> 1부
2018. 7. 8.	YTN	YTN특별토론 <우리 아이들의 대학입시> 2부
2018. 7. 9.	YTN	YTN특별토론 <우리 아이들의 대학입시> 3부
2018. 7. 6.	EBS	EBS 1TV 교육대토론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1부
2018. 7. 13.	EBS	EBS 1TV 교육대토론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2부
2018. 7. 17.	SBS	SBS특집토론 <대입제도 개편 - 우리 교육의 미래는?>

#### 4. 온라인 소통 채널 개설·운영

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론화 활동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를 개설(2018.6.15.)했다. 플랫폼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경청함과 동시에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돕기 위한 온라인 창구 역할을 수행 했다. 플랫폼은 크게 『공론화위원회 소개』, 『의제토론폰방』, 『토론자료실』, 『알림마당』, 『시민참여단 전용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회 소개』에서 위원장과 위원 소개, 공론화 절차 및 일정 안내, 공론화 뉴스 등과 같은 세부 채널을 통해 위원회의 공론화 활동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공론화제언 세부 채널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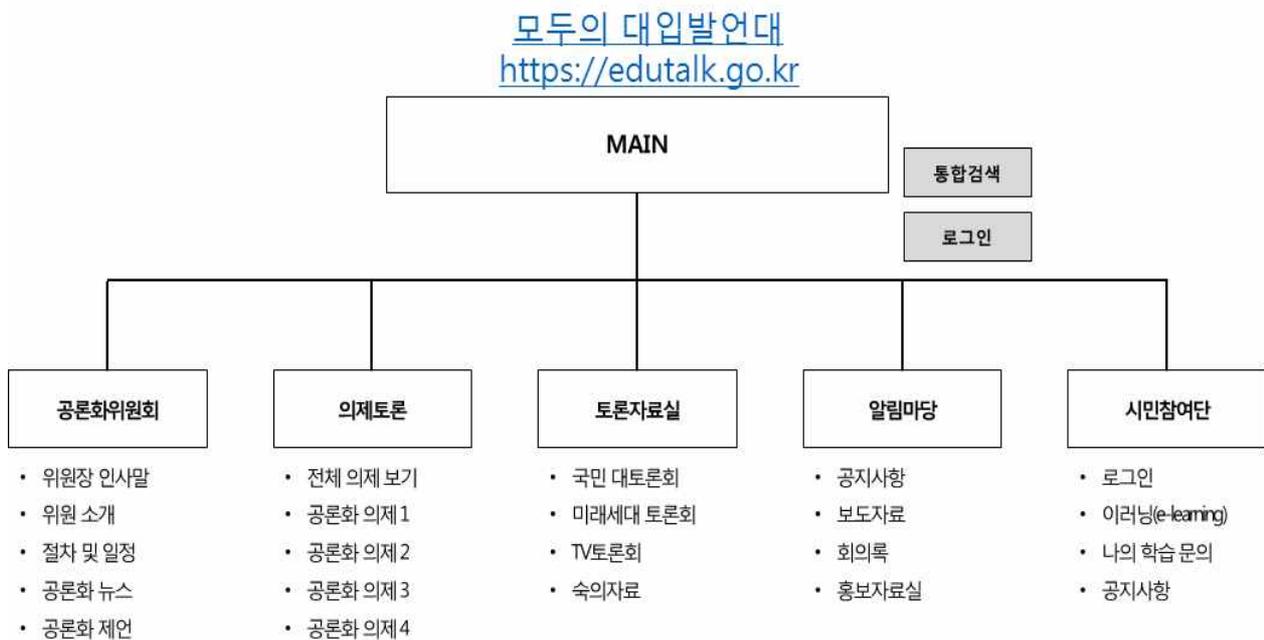
『의제토론폰방』은 공론화 의제(1~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PC와 모바일기기(태블릿, 휴대폰 등)로 간단한 SNS 로그인 후 의제 토론 참여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토론 참여 등 적극적인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했다.

국민소통플랫폼에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공론화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1~4)에 대한 찬반 논쟁 등 11,615건의 제언이 등록되었다.

『토론자료실』, 『알림마당』을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 최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숙의자료 코너에는 시민참여단이 학습하는 이러닝 영상과 숙의자료집 등을 게시하여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민들도 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전용 코너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자료(1강~8강), 숙의 자료집이 제공되었고, 학습Q&A 등 숙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민들과도 실시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했다.

**표 3-24**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메뉴 구성도



## 5. 매체광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라디오,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광판 등을 통한 매체광고가 집행되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호소하였다.

### (가) 라디오 광고

국민들에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알리기 위해 KBS, MBC, SBS 방송3사를 통해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의 내레이션이 담긴 40초 캠페인 라디오광고를 송출하였다.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간 총 106회가 방송되었다. 정책 대상자인 10대 청소년과 40~50대 학부모 층에게 인기 있는 4개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 송출되었다.

### (나) 인터넷 포털광고

일반국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가 실시되었다. 네이버(PC 롤링 배너, Mobile 브랜딩배너)와 다음(PC 초기화면 배너, Mobile 톱배너)에 광고가 집행되었다.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시민참여형 조사, 국민대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 다양한 공론화 참여방법을 알리는 플래시형 광고가 제작되었다. 광고를 누르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 ([www.edutalk.go.kr](http://www.edutalk.go.kr))로 연결되어 의제토론 참여는 물론 속의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전광판광고 및 매체 협업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시민참여형 조사 협조를 위해 전광판 국가광고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한 달간 전국 117기 이상의 전광판에 문자그래픽 광고를 집행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광고를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70개 이상의 국립대학 등 교육기관 홍보매체를 통해 표출하였다.

## 6. 언론홍보

### (1) 언론대상 설명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및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을 통해 공론화 추진 배경과 그 의미, 공론화 추진 방법,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표 3-25** 언론 인터뷰 현황

일자	매체	출연
2018. 6. 20.(수)	KBS 1TV 뉴스라인	위원장
2018. 6. 22.(금)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위원장
2018. 6. 29.(금)	KTV 생방송 대한민국	대변인
2018. 7. 6.(금)	YTN 뉴스人	위원장
2018. 7. 11.(수)	KBS 라디오 열린토론	위원장

특히 6월 20일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결정된 공론화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그 후속 절차인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 등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 6회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의 의의 및 공론화 과정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대국민 조사(6월 20일~7월 6일)를 통해 7월 10일 시민참여단 550명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숙의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교육부 출입기자 37개 매체 40여명 참석)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공론화에 대한 여러 논란이나 우려 등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하게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공론화 방식'이라는 일부의 논란 및 '시민참여단의 최종안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론, 나아가 국민들과의 충실한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 (2) 취재 지원

위원회는 공론화의 주요 단계마다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행사 현장을 공개하여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였다.

**표 3-26**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현황

구분	일자	내용
보도참고자료	2018. 4. 30.[월]	공론화위원회 운영방향 등
브리핑	2018. 5. 16.[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
보도자료	2018. 6. 12.[화]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
브리핑	2018. 6. 20.[수]	공론화 의제 선정 및 후속 절차 추진
보도자료	2018. 6. 24.[일]	대입 공론화 의제 국민 토론 본격 시작 -4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의제토론 온라인 플랫폼 개통-
보도자료	2018. 7. 11.[수]	시민참여단 확정 및 1차 숙의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18. 7. 24.[화]	2차 숙의토론회 개최

특히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시민참여단의 1·2차 숙의 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8년 7월 14일(토)과 7월 15일(일) 이틀간 4개 권역에서 실시된 1차 숙의 토론회에는 MBC, 연합뉴스TV, TV조선 등 7개 방송사와 동아, 경향, 연합뉴스 등 5개 신문사가 개최식,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 및 선서, 대입제도에 관한 발표 및 질의응답 장면 등을 취재하였다.

2018년 7월 27일(금)부터 7월 29일(토)까지 천안시 소재 계성원에서 2박 3일간 개최된 2차 숙의토론회에는 KBS, MBC, SBS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 MBN, 채널A 등 12개 방송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신문사가 개최식, 분임토의 후 전체나눔, 시민참여단과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폐회식, 시민참여단 합동인터뷰 등을 취재하였다.

특히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의제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한 2일차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참여단과 의제별 대표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KTV로 생중계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KBS, MBC, SBS, YTN 등 8개 방송사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TV, SNS 등 자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 IV.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





## 1.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 관련

공론화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는 속의 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두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입시전문가 등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여러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편적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학습하고 상호토론을 거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일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은 전문가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및 사실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과정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보다 성숙한 의견을 형성해 나갔고, 자유로운 참여와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전문가조차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한 의제 도출 방식의 타당성 관련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는 3가지 쟁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쟁점 별로 복수의 입장 선택이 가능하므로 3가지 쟁점별 입장을 조합할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도출될 수 있었다. 또한 각 쟁점들은 분리되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시민참여단의 효과적인 숙의를 위해서는 공론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화 절차는 대입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갈등이 큰 상황에서는 대입전문가라 할지라도 참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편향되거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였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3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시나리오 워크숍은 미래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미래상을 설정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대입제도 개편 역시 미래의 대입제도 방향 또는 가치를 반영하여 3가지 쟁점을 포함한 의제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대학별 자료요청에 대하여

공론화 의제를 제안한 일부 그룹에서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서 설명 및 토론에 필요한 대학별 자료를 요청해 왔다. 공론화 위원회는 대학에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사교육시장에서 입시컨설팅에 악용될 우려, 대학의 자율성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사교육시장으로 자료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학 별 회신 문서를 취합한 결과, 국·공립대학 31교 중에서 1교를 제외한 30교와 사립대학 3교는 전체 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공립대학 1교와 사립대학 14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사유는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입시컨설팅에 악용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합된 자료는 자료 요청자에게 ‘정해진 목적에 한하여 자료를 활용하며 대외 유출을 금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붙임)를 징구하여 제공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대학 중 일부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 자료를 미제출한 대학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명을 익명처리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제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시민참여단이 타당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공론화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4가지 공론화 의제 중 1가지 의제를 제안한 그룹의 대표자로 공론화 의제 협의회에 참여하였으며,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불임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별첨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해당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공받은 자료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위해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제공받은 자료 중 이미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밝히면서 그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학, 고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제공받은 일체 자료는 본인 외 타인이나 기관, 단체에 제공하지 않으며,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폐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인 성명 :

(서명)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귀하**

#### 4. 1차, 2차 숙의토론회 시 일부 단체의 현장 기자회견 및 의견서 배포 관련

1차 숙의토론회 시 일부 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피케팅 등을 펼치고 시민참여단에게 의견서를 배포하며 언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와 다른 입장의 공론화 의제 제안 그룹은 공론화위원회가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2차 숙의토론회를 앞두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였으나, 2차 장소는 별도의 외진장소에서 분리되어 진행되고 행사장 진입로에서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1차 숙의토론회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차량 1대와 일부 인원이 행사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행사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단체는 계속 피케팅 등을 진행하였고, 시민참여단에게 의견서를 배포하며 언론 기자회견을 한 후 퇴거하였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해당 단체의 배포자료는 공론화 위원회와는 무관하며 이같은 사태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해 주장을 제시하였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의제 별로 여러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제 별 대표자를 정하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단체는 이같은 공론화 의제별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숙의토론회장에서 의견서를 배포하는 행위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 운영과 시민참여단의 안정적인 공론화 참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향후 공론화 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5. 벼락치기로 공론화를 진행했고, 숙의과정이 짧았다는 우려 관련

대입제도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 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보다 안건이 훨씬 복잡하고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매우 짧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12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고,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4월 30일에 출범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2018년 8월까지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포하였으므로 공론화위원회는 해당기간 내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론화위원회는 약 3주간의 숙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해당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숙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숙의방법 설계하였다. 그 결과 시민참여단이 거주지와 가까운 근거리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1차 숙의를 진행했고, 2차 숙의도 보다 효과적인 숙의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활용, 미래세대 의견 전시, 이러닝 및 질문주차장 활용, 충분한 분임토의 시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심층적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6. 하청, 재하청 구조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관련

이번 공론화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학입시개편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으로 하청을 거듭하여 하청기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공론화위원회와 대학입시개편특별위원회는 모두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자문 기구에 해당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공론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시민들이 충분한 토의 및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상위 기구가 아니라 중립적인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과 계획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교육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이 하청, 재하청 구조로 수행되었다기보다는 각 위원회 별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최적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게 실행하도록 한 것이다.



## V.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의제에 대한 조사 결과
3.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 1. 조사 개요

시민참여형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도록 확률추출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대국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중 일부를 다시 ‘시민참여단’으로 확률추출(이중추출법)하였다.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권역별 1차 속의 토론회에서 1차 조사에 응답하고, 속의과정을 거쳐 2·3차 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대국민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을(2017.4.30. 기준 주민등록) 지역(16개 광역자치시도, 세종은 충남에 포함)·성·연령대(19세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를 기준으로 층화(총 160개 층)한 후, 각 층에서 무작위추출하였다. 대국민조사에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의견과 권역별 1차 속의 토론회 및 2차 속의 토론회(2박 3일) 참석 가능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시민참여단’은 대국민조사 응답자 20,000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희망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학생부위주전형 확대, 수능위주전형 확대, 현행유지 및 판단유보)·성·연령으로 층화(총 30개 층)한 후, 550명을 각 층에 비례배분하여 체계적 추출하였다. 이들은 권역별 1차 속의 토론회(2017.7.14.~15.)에 참석하여 1차 조사(512명)에 응답하였으며, 2차 속의 토론회(2018.7.27.~29.) 첫째 날에 2차 조사(491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 3차 조사(490명)에 응답하였다.

본 장은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의견, 중장기적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속의과정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주로 3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차, 2차 조사결과를 사용하여 응답의 추이도 살펴본다.

## 2. 의제에 대한 조사결과

### 가. 의제에 대한 종합의견

시민참여단 3차 조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제별 지지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지지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지지한다, ⑤: 매우 지지한다). 시민참여단은 각 의제별로 지지정도를 응답하였다.

3차 조사 결과, 5점 척도에 대한 평균의 경우 의제 1은 3.40점, 의제 2는 3.27점, 의제 4는 3.14점, 의제 3은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도(지지+매우 지지의 비율)의 경우 의제 1은 52.5%, 의제 2는 48.1%, 의제 4는 44.4%, 의제 3은 37.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과 지지도가 가장 높은 의제 1과 두 번째로 높은 의제 2의 평균 차이는 0.13점으로 나타났고 지지도의 차이는 4.40%p로 나타났으며, 평균과 지지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up>4)</sup>

의제별 응답결과를 성별, 연령별, 권역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구분하면 남녀 모두 의제 1의 평균이 각각 3.37점(52.3%), 3.43점(52.8%)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은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의제 1의 평균이 각각 3.21점(48.0%), 3.64점(58.7%), 3.71점(58.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 의제 2의 평균이 각각 3.30점(47.5%), 3.54점(60.8%)으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은 의제 1의 평균이 각각 3.44점(51.1%), 3.61점(63.5%), 3.38점(52.3%)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은 의제 2의 평균이 3.55점(52.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균 차이의 경우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사용하였고(p=.235), 지지도 차이의 경우 McNemar 검정을 사용하였다(p=.268).

**표 5-1** 대입제도개편 의제에 대한 의견(3차 조사)

(단위: 점, %)

구 분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4	
	평균	지지도	평균	지지도	평균	지지도	평균	지지도
전체	3.40	52.5	3.27	48.1	2.99	37.1	3.14	44.4
남자	3.37	52.3	3.27	49.8	2.94	35.7	3.12	42.3
여자	3.43	52.8	3.27	46.4	3.04	38.4	3.15	46.4
20대	3.21	48.0	3.14	45.1	3.14	45.9	3.01	41.2
30대	3.22	51.8	3.30	47.5	2.89	31.5	3.04	41.1
40대	3.09	43.3	3.54	60.8	3.00	38.0	2.99	40.8
50대	3.64	58.7	3.18	43.9	3.01	38.0	3.28	49.7
60대 이상	3.71	58.9	3.19	43.8	2.94	32.9	3.29	47.7
수도권	3.44	51.1	3.15	45.7	2.96	36.0	3.17	46.2
충청권	3.03	49.6	3.55	52.6	2.96	40.4	2.64	27.3
호남권	3.61	63.5	3.42	47.2	3.09	37.5	3.17	47.3
영남권	3.38	52.3	3.34	52.3	3.05	37.6	3.28	46.7

**나. 의제에 대한 의견추이**

각 의제별로 지지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3차 조사와 함께 1, 2차 조사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의 조사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의견의 추이를 추적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의제 1, 2, 4의 지지도가 각각 49.4%, 50.5%, 50.3%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민참여단이 세 가지의 의제에서 고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료집 및 이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차 속의 토론회(2박 3일) 첫날 실시한 2차 조사와 마지막 날 실시한 3차 조사를 의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제 1의 경우 2차 조사에서 4.4%p 증가, 3차 조사에서 1.3%p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52.5%로 나타났다. 의제 2의 경우 2차 조사에서 9.9%p 감소, 3차 조사에서 7.5%p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48.1%로 나타났다. 의제 3의 경우 2차 조사에서 8.7%p 감소, 3차 조사에서 6.6%p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37.1%로 나타났다. 의제 4의 경우 2차 조사에서 2.5%p 감소, 3차 조사에서 3.4%p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44.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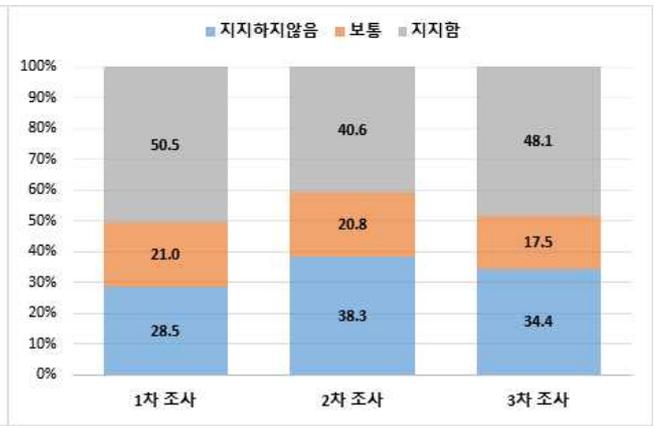
**표 5-2** 대입제도개편 의제별 지지도(지지+매우지지) 추이

(단위: %)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4
1차 조사	49.4	50.5	39.2	50.3
2차 조사	53.8	40.6	30.5	47.8
3차 조사	52.5	48.1	37.1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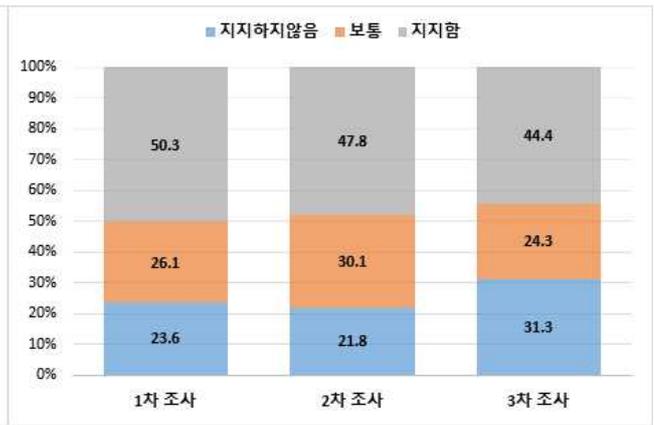
의제1



의제2



의제3



의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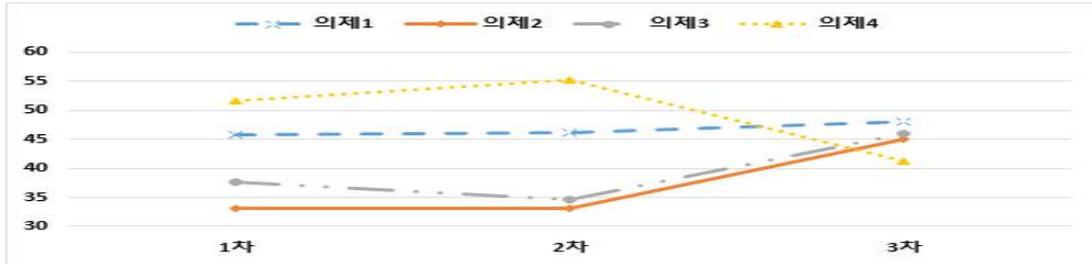
#### 다. 의제에 대한 연령별 지지 추이

20대의 경우 1차, 2차 조사에서는 의제 4의 지지가 가장 높았으나, 3차 조사에서 41.2%로 가장 지지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의제 1에 대하여는 1차부터 조금씩 상승하여 3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30대는 의제 1과 의제 4에 비슷한 지지를 나타냈으나, 2차 이후부터 의제 1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40대는 의제 2에 대한 지지가 1차 53.6%, 2차 52.6%, 3차 60.8%로 조사 내내 의제 중 제일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50대는 1차에서는 의제 2에 대한 지지가 63.2%로 가장 높았으나 2차 34.2%, 3차 43.9%로 감소하였다. 반면 의제 1에 대한 지지는 1차 49.1%, 2차 56.9%, 3차 58.7%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지가 높아지면서 3차에서 의제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60대 이상은 1차 조사에서 의제 1에 대한 지지가 60.0%로 의제 2, 의제 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제1은 2차, 3차에서도 비슷한 지지를 나타내었고, 의제 2는 2차에서 16.1%p 감소, 의제 3은 11.4%p 감소하였으며 3차에서는 2차와 비슷한 지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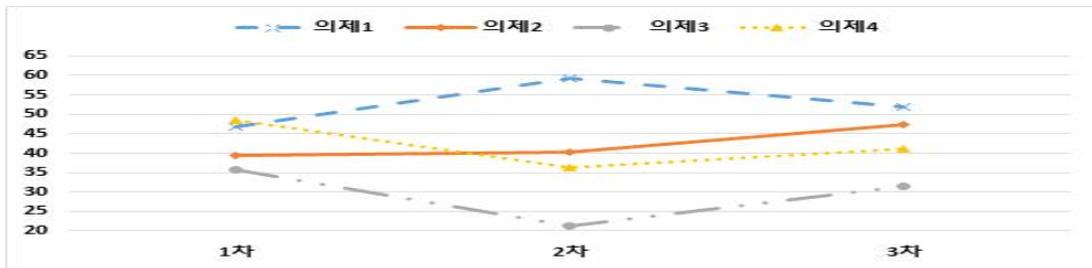
**표 5-3** 대입제도개편 의제지지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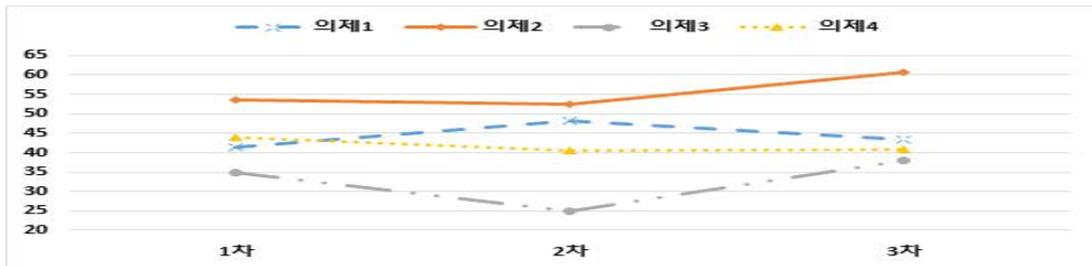
시민참여단 20대 의견추이



시민참여단 30대 의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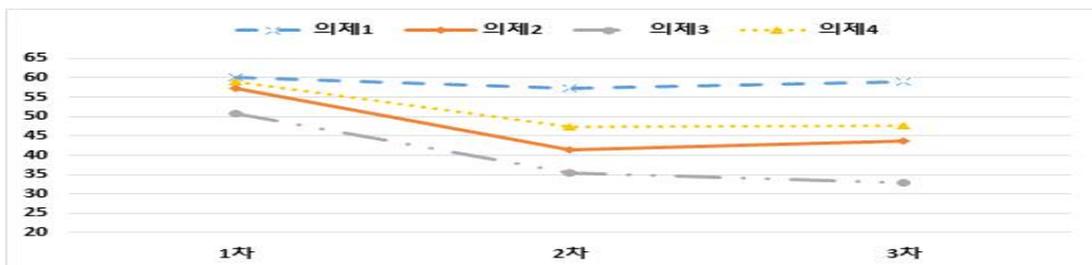
시민참여단 40대 의견추이



시민참여단 50대 의견추이



시민참여단 60대 이상 의견추이



## 라. 의제에 대한 선택 이유

시민참여단은 각 의제별로 제공한 자료집, 동영상 등을 학습하고 2박 3일의 2차 숙의토론회에서 분임토의를 통해 숙의하여 최종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제별 주장내용에 대해 각각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했다. 이 문항은 1~3차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3차 조사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93.0%, 평균 4.50),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89.5%, 4.42점), 지역·계층·학교유형간 격차 완화(84.0%, 4.21점), 학생의 수험 부담 완화(80.1%, 4.12점)순으로 나타났다. 의제 1과 의제 4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제 2와 의제 3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최종 판단의 결정요인(3차 조사)

(단위: %)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중요도 (5점 척도)
1)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	89.5	2.0	4.42
의제1 지지	93.5	0.7	4.60
의제2 지지	88.0	3.0	4.29
의제3 지지	88.0	2.1	4.25
의제4 지지	93.1	0.9	4.58
2)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	93.0	1.6	4.50
의제1 지지	90.1	2.8	4.32
의제2 지지	96.5	0.4	4.69
의제3 지지	93.2	1.2	4.57
의제4 지지	91.0	2.3	4.36
3) 대학응시 재도전 기회 부여	75.1	4.9	3.98
의제1 지지	86.0	1.3	4.22
의제2 지지	65.7	7.5	3.78
의제3 지지	72.2	7.8	3.89
의제4 지지	84.9	1.0	4.19
4)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 격차 완화	84.0	3.5	4.21
의제1 지지	81.3	3.3	4.15
의제2 지지	91.3	2.8	4.34
의제3 지지	83.6	6.1	4.11
의제4 지지	82.6	2.7	4.18
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49.0	14.9	3.43
의제1 지지	42.6	19.5	3.26
의제2 지지	55.1	10.3	3.60
의제3 지지	67.7	5.3	3.85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중요도 (5점 척도)
	의제4 지지	47.0	16.3	3.39
6) 사교육비 부담 경감		73.9	7.3	4.03
	의제1 지지	70.1	9.6	3.98
	의제2 지지	82.9	2.2	4.23
	의제3 지지	78.5	7.0	4.03
	의제4 지지	72.1	7.1	4.05
7) 학생의 수험 부담 완화		80.1	4.9	4.12
	의제1 지지	76.8	6.9	4.02
	의제2 지지	89.2	0.9	4.34
	의제3 지지	80.4	4.2	4.09
	의제4 지지	78.0	7.7	4.02
8)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 유지		78.2	5.5	4.06
	의제1 지지	78.0	6.0	4.10
	의제2 지지	77.9	5.7	4.05
	의제3 지지	84.5	3.2	4.18
	의제4 지지	79.0	4.3	4.13

\* 의제별 지지는 각 의제에 지지(지지+매우지지)를 응답한 시민참여단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중복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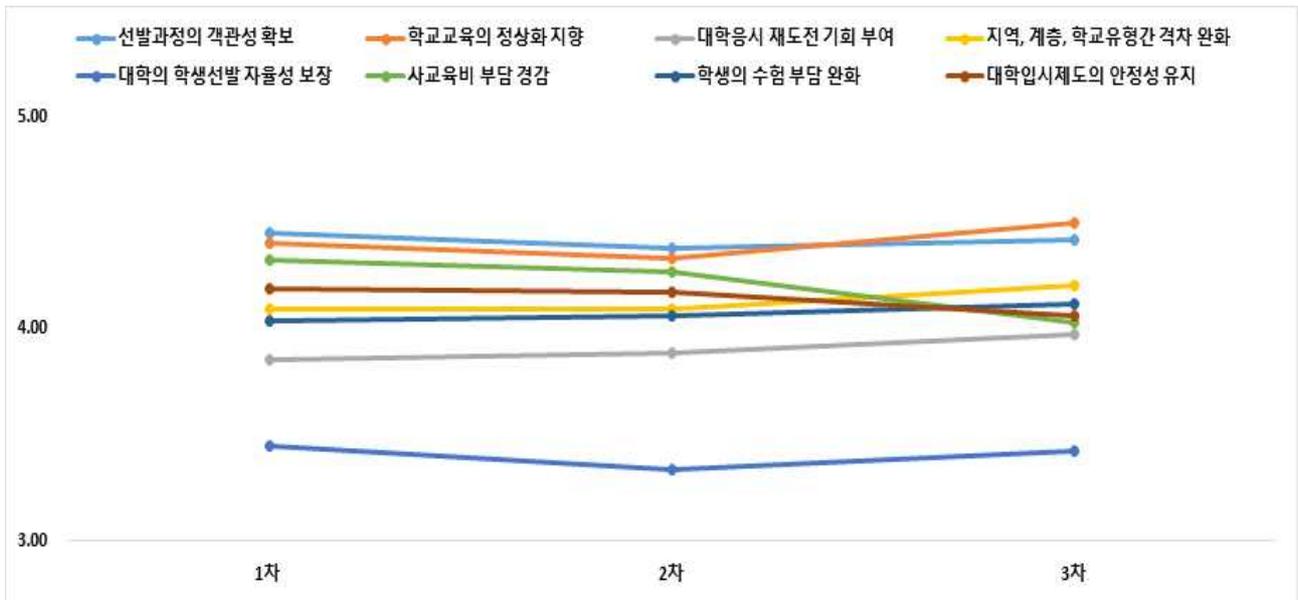
#### 마. 각 의제지지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추이

의제를 지지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에 대한 추이를 보면 1차, 2차, 3차 조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1차와 2차에서는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3차에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차에서 두 요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의 경우 1차 3.45점, 2차 3.34점, 3차 3.43점으로 모든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표 5-5** 의제결정요인 추이

(단위: 점)

	1차	2차	3차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	4.45	4.38	4.42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	4.40	4.33	4.50
대학응시 재도전 기회 부여	3.86	3.89	3.98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 격차 완화	4.09	4.10	4.2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3.45	3.34	3.43
사교육비 부담 경감	4.32	4.27	4.03
학생의 수험 부담 완화	4.04	4.06	4.12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 유지	4.19	4.17	4.06



#### 바. 대입제도 관련 입시제도 방향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입시제도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95.7%(평균 4.62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입시제도 방향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92.8%(4.42점), 다양한 적성 개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86.7%(4.27점),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시제도 85.5%(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의 중요도는 51.2%(3.51점)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제 1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76점(9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제 3과 의제 4를 지지한 시민참여단의 경우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48점(91.8%), 4.74점(9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의제 2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의 경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62점(97.2%)으로 가장 높았다.

**표 5-6** 입시제도 방향성에 따른 결정요인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중요도 (5점 척도)
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92.8	1.6	4.42
의제1 지지	89.9	2.2	4.29
의제2 지지	97.2	0.5	4.62
의제3 지지	93.3	1.2	4.45
의제4 지지	89.7	2.1	4.32
2)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95.7	0.9	4.62
의제1 지지	99.1	0.0	4.76
의제2 지지	92.3	1.4	4.51
의제3 지지	91.8	0.0	4.48
의제4 지지	98.0	0.0	4.74
3) 다양한 적성 개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86.7	2.2	4.27
의제1 지지	78.3	3.5	4.03
의제2 지지	96.2	0.9	4.56
의제3 지지	94.2	0.7	4.47
의제4 지지	82.1	2.8	4.07
4)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	51.2	9.9	3.51
의제1 지지	47.4	14.3	3.38
의제2 지지	57.0	4.9	3.67
의제3 지지	65.8	3.9	3.81
의제4 지지	51.0	13.1	3.45
5)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시제도	85.5	1.3	4.22
의제1 지지	86.9	1.1	4.26
의제2 지지	86.2	0.9	4.24
의제3 지지	82.2	2.2	4.12
의제4 지지	87.2	1.3	4.24

\* 의제별 지지는 각 의제에 지지(지지+매우지지)를 응답한 시민참여단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중복되어 있음

### 사. 2022학년도 대입제도 부가질문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의 적절한 비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40%이상~50%미만이라는 응답이 27.2%, 30%~40%미만 21.2%, 20%이상~30%미만 1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40대에서는 30%이상~40%미만이 각각 28.6%, 24.5%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40%이상~50%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2.7%, 29.3%, 3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일반대학 수능위주전형의 적절 비율

(단위: %)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전체	4.1	5.0	14.2	21.2	27.2	12.8	3.7	3.6	8.2
남자	5.8	4.7	14.0	20.5	25.6	12.6	4.2	5.1	7.5
여자	2.5	5.3	14.5	21.9	28.8	13.0	3.3	2.2	8.5
20대	1.1	4.2	23.4	28.6	19.8	11.3	2.8	3.4	5.4
30대	9.6	1.3	16.7	19.7	22.7	9.0	1.3	4.2	15.5
40대	3.3	8.0	16.5	24.5	23.4	7.9	3.9	3.3	9.2
50대	3.8	6.4	10.1	21.4	29.3	18.6	4.1	1.9	4.4
60대 이상	3.6	4.6	7.7	14.3	36.6	15.6	5.6	5.2	6.8
수도권	3.1	4.6	13.5	21.6	28.7	12.5	4.2	3.8	8.0
충청권	9.7	3.5	19.3	17.8	21.5	12.6	3.6	1.6	10.4
호남권	2.1	5.6	13.3	21.8	32.8	13.2	1.8	3.3	6.1
영남권	5.0	6.4	14.0	21.4	23.7	13.3	3.5	4.5	8.2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절한 비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30%이상~40%미만이라는 응답이 17.9%, 20%~30%미만 16.8%, 40%이상~50%미만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50%이상~60%미만이 19.8%로 가장 높고 30대와 40대에서는 30%이상~40%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0.9%, 1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10%이상~20%미만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20%이상~30%미만이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절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일반대학 학생부위주전형 내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

(단위: %)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전체	5.3	13.9	16.8	17.9	14.9	11.0	4.7	4.7	10.8
남자	5.4	15.8	17.7	12.6	14.7	9.8	4.2	6.9	12.9
여자	5.1	12.0	15.9	23.0	15.1	12.2	5.3	2.5	8.9
20대	5.9	7.8	13.9	17.9	11.8	19.8	4.8	1.5	16.6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30대	6.4	13.4	12.7	20.9	10.5	5.1	5.3	8.4	17.3
40대	1.1	11.4	12.2	17.6	17.0	14.8	6.8	8.3	10.8
50대	8.9	22.0	16.5	19.6	16.8	8.1	4.1	0.9	3.1
60대 이상	4.6	14.0	25.5	14.8	17.0	8.1	3.1	4.4	8.5
수도권	6.4	14.7	17.8	17.6	15.1	10.6	4.3	3.5	10.0
충청권	3.6	9.3	7.4	21.1	14.8	13.2	5.4	11.7	13.5
호남권	6.6	18.6	13.0	10.6	16.8	14.1	3.8	6.6	9.9
영남권	2.7	11.9	20.6	20.6	13.9	9.3	5.9	3.4	11.7

### 아. 중장기 대입정책 방향

시민참여단은 중장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방법으로 절대평가 과목 확대(27.0%), 전과목 절대평가(26.7%), 전과목 상대평가(19.5%), 상대평가 과목 확대(15.3%), 현행유지(11.5%) 순으로 응답했다. 의제 1 지지자의 경우 전과목 상대평가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제 2 지지자의 경우에는 전과목 절대평가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제 3 지지자의 경우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29.0%, 의제 4 지지자의 경우에는 전과목 상대평가가 2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5-9** 중장기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

(단위: %)

	전과목 절대평가	절대평가 과목 확대	현행유지	상대평가 과목 확대	전과목 상대평가
중장기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	26.7	27.0	11.5	15.3	19.5
의제1 지지	10.5	24.7	11.4	21.6	31.8
의제2 지지	49.4	34.3	8.7	5.1	2.5
의제3 지지	26.3	29.0	18.0	13.7	13.0
의제4 지지	12.6	26.2	11.0	21.8	28.4

\* 의제별 지지는 각 의제에 지지(지지+매우지지)를 응답한 시민참여단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중복되어 있음

시민참여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중장기 대입제도 선발방법은 학생부 위주와 수능위주 간 유사한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며(43.3%), 학생부위주전형(32.2%), 수능위주전형(24.3%)순으로 나타났다. 의제별로는, 의제 1과 의제 4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전형 간 유사한 비율 확보(47% 이상)를 가장 적절한 선발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의제 2와 의제 3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위주 전형(48% 이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10** 중장기 대입제도 선발방법

(단위: %)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전형 간 유사한 비율 확보(%)
중장기 대입제도 선발방법	32.2	24.3	43.3
의제1 지지	13.9	38.5	47.6
의제2 지지	51.0	13.1	35.5
의제3 지지	48.8	10.1	41.1
의제4 지지	15.5	36.1	48.4

\* 의제별 지지는 각 의제에 지지(지지+매우지지)를 응답한 시민참여단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중복되어 있음

시민참여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장기 학생부위주 중심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유사한 비율을 확보하는 것(39.7%)이며, 학생부종합전형 중심(37.4%), 학생부교과전형 중심(22.7%) 순으로 나타났다. 의제별로는, 의제 1과 의제 4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전형 간 유사한 비율 확보(42%이상)를 가장 적절한 선발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의제 2와 의제 3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종합전형 중심(50% 이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11** 중장기 학생부위주 중심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간 유사한 비율 확보(%)
중장기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전형	22.7	37.4	39.7
의제1 지지	31.5	26.3	42.2
의제2 지지	15.8	50.7	33.1
의제3 지지	13.2	52.8	34.0
의제4 지지	29.1	27.8	43.1

\* 의제별 지지는 각 의제에 지지(지지+매우지지)를 응답한 시민참여단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중복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중장기 교육방향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15.6%로 가장 많았으며,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1.9%, 수능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9.3%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의견이 각각 11.4%와 6.6%를 나타냈으며, 진로교육, 인성교육, 입시부정 엄정 조치 및 당사자 소통중시, 대학 서열화 해소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표 5-12** 중장기 교육방향, 고려해야 할 사항(개방형 문항)

	응답건수 (비율)	주요내용
학종 보완 개선	90 (15.6%)	▶ 학종 평가기준 공개 등 투명성 제고 ▶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학생부 내실화 ▶ 학생부 본인 참여(자기평가항목 신설 등)
대입 공정성 강화,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편	69 (11.9%)	▶ 단기적 수능 확대, 장기적 학종 제도개선
수능 보완 개선	54 (9.3%)	▶ 수능의 안정성(난이도 유지) ▶ 수능 논, 서술형 평가 도입 ▶ 수능 다중기회(3회) 부여 ▶ 변별력 확보를 위한 추가 문항 도입 ▶ 학과별 수능과목 차별화, 수능에 모의고사 점수 합산
학교교육 정상화	66 (11.4%)	▶ 학업 또는 활동에 흥미를 느껴 몰입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38 (6.6%)	▶ 사회적 약자 위주 전형 확대 ▶ 특목고, 자사고, 외고 폐지
진로교육 강화	23 (4.0%)	
인성교육 강화	30 (5.2%)	
입시부정 엄정 조치, 당사자 소통 중시	15 (2.6%)	▶ 입시부정사례 존재, 기부금 조사 필요 ▶ 학생과 교사, 고교 대학간 다양한 소통
대학 서열화 해소	12 (2.1%)	▶ 대학 서열화 해소 + 대학별 특성화
기타	181 (31.3%)	▶ 입시제도의 일관성 유지 ▶ 교사 역량 강화, 잡무 축소 필요

※ 개방형 질문으로, 동일응답에 다수의 내용이 존재할 경우 중복으로 산출

### 3. 공론화과정에 대한 평가

#### 가. 최종결과에 대한 존중 정도

시민참여단에게 3차 조사에서 의제에 대한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을 분석해 본 결과, 시민참여단은 최종결과가 본인의견과 다를 경우에도 대부분이 존중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중 1/4 이상은 매우 존중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88.0%, 30대 92.4%, 40대 95.9%, 50대 91.0%, 60대 이상이 96.3%로 2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최종결과에 대한 존중도가 낮았다. 권역별로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충청권이 96.5%로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은 9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13**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존중 정도(3차 조사)

(단위: %)

구 분		존중할 수 없다			존중하겠다		
			전혀	보통		보통	전적으로
전체		6.8	2.0	4.8	93.0	68.4	24.6
성	남자	8.1	2.8	5.3	91.9	62.9	29.0
	여자	5.6	1.3	4.3	94.0	74.1	20.4
연령대	19~29세	12.0	5.7	6.3	88.0	57.9	30.1
	30대	7.6	1.2	6.4	92.4	67.1	25.3
	40대	4.1	0.9	3.2	95.9	78.9	16.9
	50대	9.0	2.2	6.8	91.0	58.5	32.5
	60세 이상	3.0	0.8	2.2	96.3	76.5	20.4
권역	수도권	6.8	2.2	4.6	93.2	70.3	22.9
	충청권	3.5	0.0	3.5	96.5	70.6	25.9
	호남권	7.6	3.4	4.2	92.4	67.9	24.6
	영남권	8.0	1.8	6.2	91.2	63.8	28.2

\* 존중의견의 경우, 시민참여단 1명의 응답거절하여 제외하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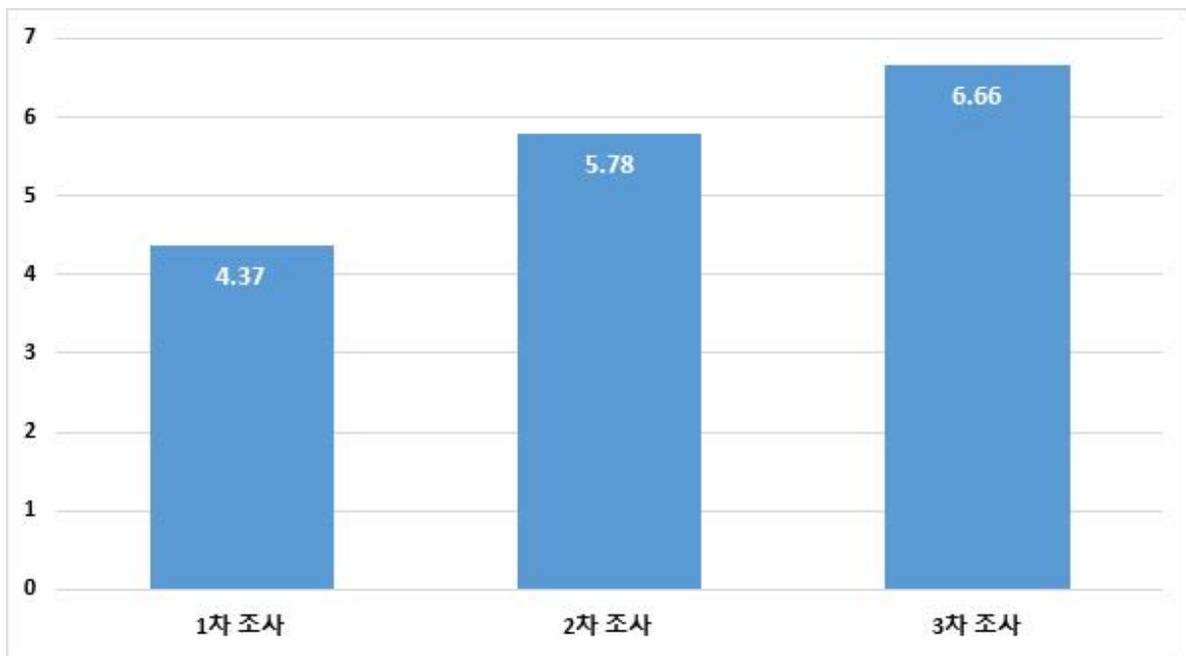
## 나. 시민참여단 대입제도 관련 지식수준

시민참여단의 대입제도 관련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집 내용에 기초한 9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제공전인 1차 조사에는 평균 4.37개, 자료집 학습 및 이러닝 수강 후인 2차 조사에서는 평균 5.78개, 2차 속의토론회 후인 3차 조사에서는 평균 6.66개의 정답을 맞혔다.

**표 5-14** 지식문항 정답률 추이

(단위: %)

구 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평균 정답률	48.6	49.3	47.9	64.2	65.0	63.4	74.0	74.1	73.8
대입제도개편 적용시기	77.9	75.6	80.2	90.4	91.2	89.7	96.5	96.2	96.8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	36.5	39.8	33.3	49.7	51.0	48.4	61.4	62.8	60.2
학생부종합전형 정의	83.0	85.4	80.6	89.8	91.6	88.1	94.9	97.5	92.4
수시모집 미포함전형	60.4	59.8	60.9	76.4	74.9	77.8	83.3	85.8	80.9
수시모집 지원횟수	48.8	42.5	55.0	79.8	77.4	82.1	91.8	89.5	94.0
대입제도 중 최고 선발비중	20.5	24.0	17.1	35.8	39.3	32.5	40.0	39.7	40.2
수능과목 중 절대평가과목	53.3	53.5	53.1	78.4	79.9	77.0	93.7	94.6	92.8
대입전형 모집요강 발표주체	32.6	37.8	27.5	31.2	32.6	29.8	37.1	36.8	37.5
수능성적표 미표기사항	24.2	25.6	22.9	46.2	47.3	45.2	66.9	64.0	69.7



#### 다. 분임토의 및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3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본인이 참여한 분임토의에 대해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나는 분임토의에서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했다’, ‘나는 분임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됐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했다’ 등 다섯 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다섯 개 응답의 평균점수를 분임토의에 대한 평가점수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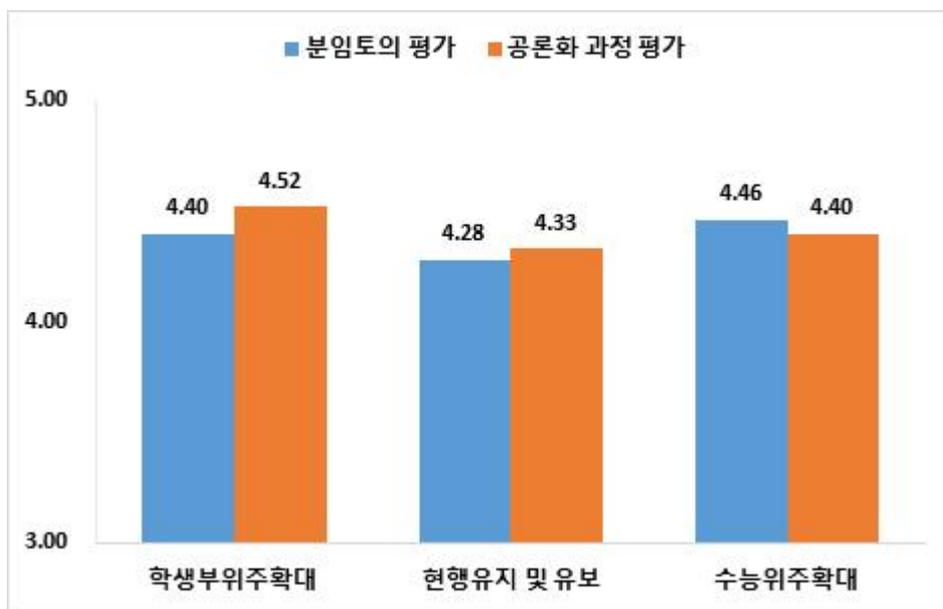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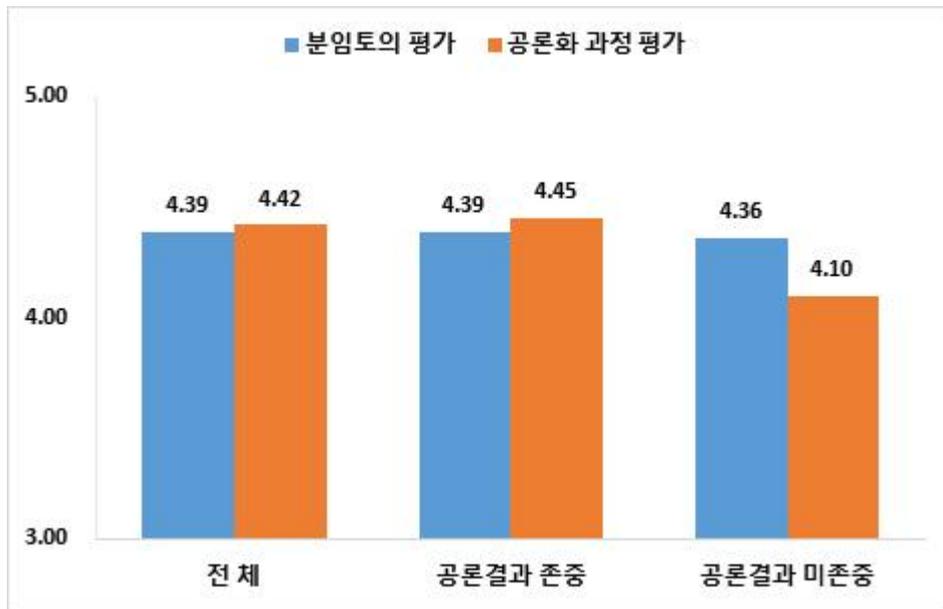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에 대한 평가는 평균 4.3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론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시민참여단과 존중하겠다는 시민참여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값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국민조사’의 중시 전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행유지 및 유보를 선택했던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위주전형 확대, 수능위주 전형 확대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에 비해 분임 토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3차 조사에서는 전체 공론화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입제도 정책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정부가 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여도 정부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다음에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등 다섯 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다섯 개의 응답평균을 전체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로 삼았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평균 4.42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공론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시민참여단이 존중하겠다는 시민참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대국민조사에서 학생부위주확대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이 현행유지 및 유보, 수능위주확대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았다.

**표 5-15** 분임토의 및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5점 척도(3차 조사)

공론과정 존중	분임토의 평가	공론화 과정 평가	대국민조사 중시 전형	분임토의 평가	공론화 과정 평가
전 체	4.39	4.42	학생부확대	4.40	4.52
공론결과 존중	4.39	4.45	현행유지 및 유보	4.28	4.33
공론결과 미존중	4.36	4.10	수능확대	4.46	4.40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는 평균 4.05점으로 높았다. 또한 공론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시민참여단(4.12점)보다 공론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시민참여단(3.27점)의 결과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대국민조사’의 확대전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행유지 및 유보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3.94점)은 학생부위주전형 확대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4.16점),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4.06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16** 공론화 과정의 전반적 만족도-5점 척도(3차 조사)

공론과정 존중	공론화 과정 만족도	대국민조사 중시 전형	공론화 과정 만족도
전 체	4.05	학생부확대	4.16
공론결과 존중	4.12	현행유지 및 유보	3.94
공론결과 미존중	3.27	수능확대	4.06



#### 라. 공론화 과정의 도움정도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5점 척도의 평균점수는 4.47점이었으며, 도움이 되었다가 93.7%, 보통이 5.1%,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2%로 시민참여단 대부분은 공론화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공론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시민참여단과 존중하겠다는 시민참여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각각 94.9%와 78.1%로 도움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대국민조사’의 중시 전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행유지 및 유보를 선택했던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위주전형 확대,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을 가졌던 시민참여단에 비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17** 공론화 과정의 도움정도(3차 조사)

(단위: %, 점)

구 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도움이 되었다.			평균 점수
		전혀	보통	매우					
전체		1.2	0.0	1.2	5.1	93.7	39.1	54.6	4.47
공론과정 존중	공론결과 존중	0.8	0.0	0.8	4.3	94.9	39.7	55.2	4.49
	공론결과 미존중	6.1	0.0	6.1	15.8	78.1	32.1	46.0	4.18
대국민조사 중시 전형	학생부확대	2.5	0.0	2.5	3.2	94.3	38.9	55.4	4.47
	현행유지 및 유보	0.9	0.0	0.9	9.4	89.7	44.6	45.1	4.34
	수능확대	0.4	0.0	0.4	3.7	95.9	35.9	60.0	4.55





## VI. 주요성과 및 제언



1. 주요 성과

2. 제언



# 1. 주요성과

##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공정성하고 중립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김영란 (전)대법관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소통분과, 숙의분과, 조사통계분과에는 각각 2인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내실있게 설계·운영한 공론화위원회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나.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의제 선정 과정에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 반영

대입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의제를 선정하여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 워크숍에 학생, 교원, 학부모·시민단체 및 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별로 균등하게 7명씩 총 35명이 의제 선정 주체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각 의제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숙의 토론회, 숙의자료집 제작 등에 이들을 참여 시킴으로써 공론화 과정 전반에서 의제 선정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숙의(熟議)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 다.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권역별 미래세대토론회 및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토론의 주체로 참여한 미래세대토론회는 대입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오프라인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TV 토론회 개최,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개통하고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같이 다양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온·오프라인 대국민 소통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라. 시민참여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

### (1) 모집단 대표성 우수

이번 공론화에서는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 시 층화 이중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추출 과정에서 적절한 층화변수를 도입하는 등 사회과학적인 조사통계 방법론을 준용하였고 무선 가상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편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추정 단계에서도 적용된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추정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편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 (2) 적절한 표본 규모 확보

대국민조사와 시민참여형 조사에서는 적절한 크기의 표본 규모를 확보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대국민조사의 경우 2018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자료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을 지역,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160개 층으로 구분하고 비례 배분하여 각 층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대국민조사 응답자 20,000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을 통해 시민참여단 550명을 선정하였다.

### (3) 자료 수집의 충실성

대국민조사 시 재통화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휴대전화와 집전화에 모두 최대 26회 재통화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로 인해 조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접촉 성공률을 달성하여 휴대전화의 경우 58.9%를, 집전화는 56.9%의 접촉성공률을 보였다.

#### 마.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 운영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제를 개발한 집단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공론화 의제 협의회는 의제 간 참여하게 대립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의제팀들의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의제 협의회 운영은 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는 없었던 시나리오워크숍이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 의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제 선정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담당할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설계,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증을 위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검증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검증위원회는 모두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주관하였다.

#### 바. 시민참여단 속의 내실화

내실있는 속의는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므로 시민참여단의 속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먼저 시민참여단 속의 토론회는 권역별로 1차로 실시하고, 2차에는 전체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도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에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이벤트를 본 공론화에서는 1차 속의 토론회로 변경하여 4개 지역별로 분산 실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자택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 시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확보된 시간은 속의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속의 자료집과 이러닝(e-learning) 동영상을 1차 속의 토론회 전에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함으로써 1차 속의 토론회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속의 과정에서 분임토의 및 전체나눔을 심도있게 설계하였고 모더레이터

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분임토의 및 전체나눔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의제팀이 직접 답변하도록 Q&A방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참여단과 의제팀 간의 소통을 확대하였다.

#### 사. 공론화 체계의 역할 분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교육회의는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입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쟁점 범위 설정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특위가 담당하였고, 쟁점에 따른 의제 선정과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각 의제 개발 그룹의 대표들이 참여한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화는 궁극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심도있는 숙의를 담보하기 위한 시도로서 향후 공론화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2. 제언

### 가.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선 가상번호 사용에 관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에서도 선거여론조사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향후 시민참여형 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나. 공론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 및 공감을 위한 노력 필요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론화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 매체 등에 비교적 빈번히 제기되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시민들의 자발성이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절박성이 높지 않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도 이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향후 정책 사안에 공론화 방법을 활용할 경우 공론화 시작 전에 공론화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 별첨 자료



1.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주요 일지
2. 시민참여형 조사 설문지
3. 대국민조사 설문 결과
4.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발표문



**별첨1**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주요 일지**

일시	내 용
'18. 04. 11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교육부)
'18. 04. 16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발표(국가교육회의)
'18. 04. 29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 7인 구성)
'18. 04. 30	제1차 정기회의
'18. 05. 01	숙의분과 제1차 회의
'18. 05. 09	조사분과 제1차 회의 숙의분과 제2차 회의
'18. 05. 16	제2차 정기회의 대입제도 공론화 추진계획 발표
'18. 05. 17	조사분과 제2차 회의
'18. 05. 22	숙의분과 제3차 회의 공론화위원회 1차 간담회
'18. 05. 23	제3차 정기회의 숙의분과 제4차 회의 소통분과 제1차 회의
'18. 05. 24	조사분과 제3차 회의 소통분과 제2차 회의
'18. 05. 28	소통분과 제3차 회의
'18. 05. 30	제4차 정기회의 숙의분과 제5차 회의 소통분과 제4차 회의
'18. 05. 31	조사분과 제4차 회의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발표(국가교육회의)

일시	내 용
'18. 06. 04	제5차 정기회의 숙의분과 제6차 회의 소통분과 제5차 회의 공론화위원회 2차 간담회
'18. 06. 05	조사분과 제5차 회의
'18. 06. 07	숙의분과 제7차 회의
'18. 06. 11	제6차 정기회의 숙의분과 제8차 회의 소통분과 제6차 회의 공론화위원회 3차 간담회
'18. 06. 15	숙의분과 제9차 회의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1차 개통(공론화위원회, 알림마당)
'18. 06. 16 ~ 6. 17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학생, 교원 등 35명 참석, 1박2일)
'18. 06. 18	조사분과 제6차 회의 소통분과 제7차 회의 공론화의제 협의회 제1차 회의 공론화위원회 4차 간담회 전광판광고(6.18~7.31) 라디오광고, 포털광고(6.18~7.15)
'18. 06. 20	제7차 정기회의 숙의분과 제10차 회의 소통분과 제8차 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발표(언론브리핑) KBS1TV <뉴스라인> 인터뷰(위원장)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실시(6.20~7.6)
'18. 06. 21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2차 개통(의제토론, 토론자료실)
'18. 06. 22	공론화의제 협의회 제2차 회의 KBS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인터뷰(위원장)
'18. 06. 25	공론화위원회 5차 간담회
'18. 06. 26	숙의분과 제11차 회의 미래세대토론회 및 국민대토론회 개최(총청권)

일시	내 용
'18. 06. 27	제8차 정기회의 미래세대토론회 개최(수도·강원권)
'18. 06. 28	미래세대토론회 및 국민대토론회 개최(영남권)
'18. 06. 29	조사분과 제7차 회의 숙의분과 제12차 회의 소통분과 제9차 회의 공론화협의제 협의회 제3차 회의 KTV <생방송 대한민국> 인터뷰(대변인)
'18. 06. 30	공론화 의제 발표(4개)
'18. 07. 01	소통분과 제10차 회의
'18. 07. 02	공론화위원회 6차 간담회
'18. 07. 03	공론화협의제 협의회 제4차 회의
'18. 07. 04	제9차 정기회의 숙의분과 제13차 회의
'18. 07. 05	국민대토론회 개최(호남권)
'18. 07. 06	소통분과 제11차 회의 EBS 교육대토론 2부작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제1부> YTN <뉴스인> 인터뷰(위원장)
'18. 07. 07	조사분과 제8차 회의 YTN 특별기획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1부>
'18. 07. 08	YTN 특별기획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2부>
'18. 07. 09	공론화위원회 7차 간담회 YTN 특별기획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3부>
'18. 07. 10	조사분과 제9차 회의 시민참여단 선정(550명) 국민대토론회 개최(수도·강원권)

일시	내 용
'18. 07. 11	제10차 정기회의 소통분과 제12차 회의 기자간담회 개최 KBS 1라디오 <열린토론> 인터뷰(위원장)
'18. 07. 12	공론화의제 협의회 제5차 회의
'18. 07. 13	EBS 교육대토론 2부작 <대입제도 개편 특집토론 제2부>
'18. 07. 14	시민참여단 1차 숙의(수도권, 호남권) 1차 설문조사
'18. 07. 15	시민참여단 1차 숙의(영남권, 충청권) 1차 설문조사
'18. 07. 16	공론화위원회 8차 간담회
'18. 07. 17	조사분과 제10차 회의 소통분과 제13차 회의 SBS 특집토론 <교육의 미래와 대입제도 개편>
'18. 07. 18	제11차 정기회의 공론화의제 협의회 제6차 회의
'18. 07. 20	조사분과 제11차 회의
'18. 07. 23	제12차 정기회의
'18. 07. 24	공론화의제 협의회 제7차 회의
'18. 07. 26	제13차 정기회의
'18. 07. 27 ~ 07. 29	시민참여단 2차 숙의(천안 계성원, 2박3일) 2차 · 3차 설문조사 KTV 생중계(7.28. 14:50~17:10 / 시민참여단과 의제별 대표자의 질의응답)
'18. 08. 0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 주관기관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 [면접원 인사말]

-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면접원 \_\_\_\_입니다.
- 저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의뢰로, 대학교 입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 3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조사이며, 참여하신 분께는 감사의 뜻으로 1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조사결과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1. 서울 | 9. 강원         |
| 2. 부산 | 10. 충북        |
| 3. 대구 | 11. 충남(세종 포함) |
| 4. 인천 | 12. 전북        |
| 5. 광주 | 13. 전남        |
| 6. 대전 | 14. 경북        |
| 7. 울산 | 15. 경남        |
| 8. 경기 | 16. 제주        |

**선문2. 성별(면접원: 묻지 말고 기록)**

1. 남자
2. 여자

**선문3. 선생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는지요? 만 \_\_\_세**

1. 18세 이하    ⇒ 면접중단
2. 19 ~ 29세
3. 30 ~ 39세
4. 40 ~ 49세
5. 50 ~ 59세
6. 60세 이상

**문1.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처음 듣는 이야기다

문2.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입전형은 주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위주전형,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전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순서 Rotation)  
(보기순서 1-2, 2-1 Rotation)

- |                        |         |
|------------------------|---------|
| 1. 학생부위주전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 문2-1로 |
| 2. 수능위주전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 문2-2로 |
| 9. 잘 모르겠다              | ☞ 문3으로  |

문2-1. (문2=①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학생부위주전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①~⑤ 로테이션]

1.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2.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3. 지역, 계층, 학교 유형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4.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6. 기타
9. 잘 모르겠다

문2-2. (문2=②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수능위주전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①~⑤ 로테이션]

1. 학생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 수험생이 재도전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3.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4.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6. 기타
9. 잘 모르겠다

문3.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학교 입학 전형은 전국기준 학생부위주 66%, 수능 위주 21%, 기타 13%입니다. \_\_님께서 2022학년도 대학교 입학 전형은 학생부 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중 어느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순서 Rotation)  
(보기순서 1-2-3, 3-2-1 Rotation)

1. 학생부위주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잘 모르겠다

문4. 선생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입제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⑥ 로테이션]

1.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
2. 학교 교육 정상화나 내실화를 위한 방향
3. 학생선발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
4. 지역, 계층, 학교 유형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
5.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
6.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
7. 기타
9. 잘 모르겠다

문5.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는 2022년 대입제도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하루 동안의 1차 토론회와 7월 27일 금요일 저녁부터 29일 일요일 오후까지 총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2차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토론회에 참석할 생각이 있습니까? 65만원의 참석 사례비를 드리고,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모두 제공하여 드립니다.

(수도권, 호남권의 경우 7월 14일 토요일, 충청권, 영남권의 경우 7월 15일 일요일)

1. 참석할 생각이 있다
2. 참석할 생각이 없다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문6. (가상번호 응답자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선생님께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1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시겠어요?

1. 휴대전화 번호 알려줌(휴대전화 번호: \_\_\_\_\_) ☞ 문7로
9. 거절 ☞ 문6-1

문6. (유선전화 응답자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선생님께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1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시겠어요?

1. 휴대전화 번호 알려줌(휴대전화 번호: \_\_\_\_\_) ☞ 문7로
2. 휴대전화 없음 ☞ 문6-1
9. 거절 ☞ 문6-1

문6-1. 그럼 선생님의 계좌로 사례비 1천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례비를 받으실 계좌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1. 계좌번호 알려줌(은행명: \_\_\_\_ / 계좌번호: \_\_\_\_ / 예금주: \_\_\_\_ ) ☞ 문7로
2. 계좌번호 제공 거절(사례비 거절) ☞ 문7로

문7. (문5=㉠ 또는 ㉢ 응답자만) [수도권/호남권의 경우] 7월 14일 토요일 / [충청권/영남권의 경우] 7월 15일 일요일 1차 토론회 1일과 7월 27일 금요일 저녁부터 29일 일요일 오후까지 2박3일 2차 토론회 참석 요청을 위해 7월 8일부터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 요청을 위해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1. 연락을 해도 됩니다 ☞ 문7-1로
2. 연락을 하지 말아주세요 ☞ 문8로

문7-1. (가상번호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기 위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1. 휴대전화 번호 알려줌(휴대전화 번호: \_\_\_\_\_)

**문7-1. (유선전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기 위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유선전화로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해 통화자 확보)

1. 휴대전화 번호 알려줌(휴대전화 번호 \_\_\_\_\_)
2. 휴대전화 없음(이름 \_\_\_\_\_)

**문8.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 하십니까? 국회의원 의석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5. 정의당
6. 기타 정당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99. 모름/무응답(원치 마시오)

○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 [1차 조사] - 가형

- 주관기관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를 비롯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앞으로 3회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조사인데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지는 「가, 나, 다, 라」형으로 의제의 순서가 순환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ID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명찰 ID		이름	
핸드폰 번호			

※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의제(시나리오)별 지지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의제 1>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미래교육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외부의 영향이 최소화 된 본인의 학습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여야 한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型的의 균형을 유지한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型的의 선발 인원을 45% 이상(수시이월인원 제외) 선발하여야 한다. (단, (수시)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김.) 그 이유는 상위권 대학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이 거의 없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내신 중 하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型的은 거의 정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정시)수능위주전型的이 급격히 축소되고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n수생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재학생이 체감하는 정시 비율은 사실상 10% 이내이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수능 평가 방법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여 수능은 변별력 상실로 대입선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시)수능위주전型的과 (수시)학생부 위주전型的의 균형유지</li> <li>•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型的으로 45%이상 선발</li> </ul>	상대평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교육부 영향력 행사 배제</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2>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더 이상 성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에 얽매어 다수 학생을 좌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상대적 서열보다 학습자의 학업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학교 수업보다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수업이 가능해 진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정시)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특성(수도권과 지방)과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능 상대평가가 변별력 확보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나 상대평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교실 수업, 학생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교실 수업,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교실 수업 등 심각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어 있어 수학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행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li> </ul>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용가능</li> <li>•단, 현행보다 기준강화 불가*</li> <li>* (예)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음</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3>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가 전개될 것이다. 대학은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한 역량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획일적이지 않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운영하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행할 책무를 지닌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전형제도 유형별 비율의 설정은 대학의 설립유형(국·공립/사립), 설립 취지 및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변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설정 여부는 대학의 특성 내지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수준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관련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을 권장한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li> </ul>	상대평가 유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명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관련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 제한 권장</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4>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확대와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축소 및 공정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의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여야 한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며,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각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부적 비율은 각 대학의 여건을 존중하여 대학이 결정하게 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독자적인 전형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비율의 균형 확보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자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 선생님께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의제를 지지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응시 재도전 기회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①	②	③	④	⑤
6) 사교육비 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7) 학생의 수험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8)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 유지	①	②	③	④	⑤

문2. 선생님께서는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시제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 시 제 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적성 개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5)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문3. 선생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접하셨습니까?

행 동	전혀 접하지 못했다	별로 접하지 못했다	보통이다	조금 접했다	자주 접했다
1) 방송	①	②	③	④	⑤
2) 신문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4) 지인들과의 대화(의견교환)	①	②	③	④	⑤

문4.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보원이 제공하는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정 보 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	①	②	③	④	⑤
2) 교원	①	②	③	④	⑤
3) 대학	①	②	③	④	⑤
4)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5) 사교육 기관	①	②	③	④	⑤
6) 언론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대입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응답해주세요  
[출처: 자료집(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현행대입제도 이해)]

문5. 다음 중 올해 8월에 발표될 대입제도개편 내용이 대학입시에 처음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 ① 2019학년도                      ② 2020학년도                      ③ 2021학년도
- ④ 2022학년도                      ⑤ 잘 모르겠다

문6. 다음 보기 중 현재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쟁점)이 아닌 것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선발방법의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 ③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④ 수능평가방법
- ⑤ 잘 모르겠다

문7.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 ③ 논술위주전형                      ④ 실기위주전형
- ⑤ 잘 모르겠다

문8. 현재 기준 수시모집에 포함되지 않는 전형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위주전형                      ② 논술위주전형
- ③ 수능위주전형                      ④ 실기위주전형
- ⑤ 잘 모르겠다

문9.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총 몇 회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6회                                      ② 7회                                      ③ 8회
- ④ 9회                                      ⑤ 잘 모르겠다

문10. 현재 전국기준 대입제도 중 선발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 ③ 수학능력시험전형                  ④ 논술 및 실기
- ⑤ 잘 모르겠다

문11. 다음 보기 중 현재 수능과목 중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 ④ 탐구                                      ⑤ 잘 모르겠다

문12. 다음 중 대입전형 모집요강 발표를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정부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③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④ 대학
- ⑤ 잘 모르겠다

문13. 다음 중 현재 수능성적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원점수                                      ② 표준점수
- ③ 백분위                                      ④ 등급
- ⑤ 잘 모르겠다

○ 감사합니다. ○

○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 [2차 조사] - 가형

- 주관기관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를 비롯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앞으로 3회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사인데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지는『가, 나, 다, 라』형으로 의제의 순서가 순환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조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조		이름	
핸드폰 번호			

※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의제(시나리오)별 지지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의제 1>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미래교육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외부의 영향이 최소화 된 본인의 학습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여야 한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을 유지한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의 선발 인원을 45% 이상(수시이월인원 제외) 선발하여야 한다. (단, (수시)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김.) 그 이유는 상위권 대학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이 거의 없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내신 중 하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은 거의 정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급격히 축소되고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n수생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재학생이 체감하는 정시 비율은 사실상 10% 이내이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수능 평가 방법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여 수능은 변별력 상실로 대입선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유지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이상 선발	상대평가 유지	•대학자율 •단, 교육부 영향력 행사 배제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2>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더 이상 성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에 얽매어 다수 학생을 좌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상대적 서열보다 학습자의 학업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학교 수업보다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수업이 가능해 진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정시)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특성(수도권과 지방)과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능 상대평가가 변별력 확보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나 상대평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교실 수업, 학생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교실 수업,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교실 수업 등 심각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어 있어 수학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행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li> </ul>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용가능</li> <li>•단, 현행보다 기준강화 불가*</li> <li>* (예)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음</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3>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가 전개될 것이다. 대학은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한 역량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획일적이지 않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운영하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행할 책무를 지닌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전형제도 유형별 비율의 설정은 대학의 설립유형(국·공립/사립), 설립 취지 및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변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설정 여부는 대학의 특성 내지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수준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을 권장한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li> </ul>	상대평가 유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명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 제한 권장</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4>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확대와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축소 및 공정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의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여야 한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며,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각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부적 비율은 각 대학의 여건을 존중하여 대학이 결정하게 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독자적인 전형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비율의 균형 확보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자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 선생님께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의제를 지지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응시 재도전 기회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①	②	③	④	⑤
6) 사교육비 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7) 학생의 수험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8)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 유지	①	②	③	④	⑤

문2. 선생님께서는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시제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 시 제 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적성 개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5)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문3. 선생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접하셨습니까?

행 동	전혀 접하지 못했다	별로 접하지 못했다	보통 이다	조금 접했다	자주 접했다
1) 방송	①	②	③	④	⑤
2) 신문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4) 지인들과의 대화(의견교환)	①	②	③	④	⑤
5)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회	①	②	③	④	⑤
6) 공론화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집	①	②	③	④	⑤
7) 공론화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이러닝 자료	①	②	③	④	⑤
8) 공론화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질의응답	①	②	③	④	⑤

문4. 선생님께서는 자료집을 어느 정도나 보셨습니까?

- 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 ② 절반보다 많이 봤다(3/4정도)
- ③ 절반 정도 봤다(2/4정도)
- ④ 절반 보다는 적게 봤다(1/4정도)
- ⑤ 전혀 보지 않았다

문5. 다음은 의제별 자료집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내 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학생 선발을 위해 면접, 논술, 대학별 고사 등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통해 학생들은 노력에 상응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부종합전형은 선발기준과 전형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마다 설립의 취지, 인재상, 소재지역과 규모 등이 다양하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으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수업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의 선발전형별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	①	②	③	④	⑤
8) 수능시험은 객관적인 시험이지만, 학생별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공정한 시험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대입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응답해주세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현행대입제도 이해]

문6. 다음 중 올해 8월에 발표될 대입제도개편 내용이 대학입시에 처음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 ① 2019학년도                      ② 2020학년도                      ③ 2021학년도  
④ 2022학년도                      ⑤ 잘 모르겠다

문7. 다음 보기 중 현재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쟁점)이 아닌 것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선발방법의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③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④ 수능평가방법  
⑤ 잘 모르겠다

문8. 다음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③ 논술위주전형                      ④ 실기위주전형  
⑤ 잘 모르겠다

문9. 현재 기준 수시모집에 포함되지 않는 전형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위주전형                      ② 논술위주전형  
③ 수능위주전형                      ④ 실기위주전형  
⑤ 잘 모르겠다

문10.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총 몇 회로 알고 계십니까?

- ① 6회                                      ② 7회                                      ③ 8회  
④ 9회                                      ⑤ 잘 모르겠다

**문11.** 현재 전국기준 대입제도 중 선발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 ③ 수학능력시험전형                  ④ 논술 및 실기
- ⑤ 잘 모르겠다

**문12.** 다음 보기 중 현재 수능과목 중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 ④ 탐구                                      ⑤ 잘 모르겠다

**문13.** 다음 중 대입전형 모집요강 발표를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정부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③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④ 대학
- ⑤ 잘 모르겠다

**문14.** 다음 중 현재 수능성적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원점수                                      ② 표준점수
- ③ 백분위                                      ④ 등급
- ⑤ 잘 모르겠다

※ 통계처리를 위해 여쭙겠습니다.

**DQ1.**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재 이상

**DQ2. 한국 사회를 10개 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선생님의 가구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면 1, '높다'면 10으로 1에서 10까지 사이의 숫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낮다 (아래)			중간				높다 (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Q3.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성향)을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진보	진보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보수	매우 보수
①	②	③	④	⑤

**DQ4. 선생님께서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
- ② 자영업
-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⑤ 사무/관리/전문직
- ⑥ 주부(가사에만 종사)
- ⑦ 학생
- ⑧ 무직/퇴직/은퇴 등

**DQ5. 선생님 닉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DQ6. 최근 3년간 본인 또는 자녀, 형제 등 대입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감사합니다. ○

○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 [3차 조사] - 가형

- 주관기관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를 비롯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총 3회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조사인데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지는「가, 나, 다, 라」형으로 의제의 순서가 순환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조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조	조	이름	
핸드폰 번호	-	-	-

※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의제(시나리오)별 지지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의제 1>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미래교육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외부의 영향이 최소화 된 본인의 학습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여야 한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型的의 균형을 유지한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의 선발 인원을 45% 이상(수시이월인원 제외) 선발하여야 한다. (단, (수시)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김.) 그 이유는 상위권 대학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이 거의 없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내신 중·하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은 거의 정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급격히 축소되고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n수생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재학생이 체감하는 정시 비율은 사실상 10% 이내이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수능 평가 방법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여 수능은 변별력 상실로 대입선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型的의 균형유지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이상 선발	상대평가 유지	•대학자율 •단, 교육부 영향력 행사 배제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2>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더 이상 성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에 얽매어 다수 학생을 좌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상대적 서열보다 학습자의 학업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학교 수업보다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수업이 가능해 진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정시)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특성(수도권과 지방)과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능 상대평가가 변별력 확보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나 상대평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줄 세우는 교실 수업, 학생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교실 수업,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교실 수업 등 심각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어 있어 수학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행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li> </ul>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용가능</li> <li>•단, 현행보다 기준강화 불가*</li> <li>* (예)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음</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3>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가 전개될 것이다. 대학은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한 역량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획일적이지 않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운영하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행할 책무를 지낸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전형제도 유형별 비율의 설정은 대학의 설립유형(국·공립/사립), 설립 취지 및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변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설정 여부는 대학의 특성 내지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수준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관련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을 권장한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li> </ul>	상대평가 유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자율</li> <li>•단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명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관련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 제한 권장</li> </ul>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제 4>

(전문)

**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입제도**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정시)수능위주전형의 확대와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축소 및 공정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의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여야 한다.

**시나리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정시)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며,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각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명확한 지침'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부적 비율은 각 대학의 여건을 존중하여 대학이 결정하게 한다.

**<수능 평가방법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정시)수능위주전형이 독자적인 전형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요약)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비율의 균형 확보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자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페이지에  
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의제를 지지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향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응시 재도전 기회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①	②	③	④	⑤
6) 사교육비 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7) 학생의 수험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8)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 유지	①	②	③	④	⑤

문2. 선생님께서는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시제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 시 제 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적성 개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5)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은 의제별 자료집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내 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학생 선발을 위해 면접, 논술, 대학별 고사 등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통해 학생들은 노력에 상응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부종합전형은 선발기준과 전형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전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마다 설립의 취지, 인재상, 소재지역과 규모 등이 다양하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으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배움이 실현되는 학교수업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의 선발전형별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	①	②	③	④	⑤
8) 수능시험은 객관적인 시험이지만, 학생별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공정한 시험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정보원이 제공하는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정 보 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	①	②	③	④	⑤
2) 교원	①	②	③	④	⑤
3) 대학	①	②	③	④	⑤
4)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5) 사교육 기관	①	②	③	④	⑤
6) 언론	①	②	③	④	⑤

문5.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결과가 선생님의 의견과 다를 때, 이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시겠습니까?

전혀 존중할 수 없다	존중할 수 없다	존중하겠다	전적으로 존중하겠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대입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응답해주세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현행대입제도 이해]

문6. 다음 중 올해 8월에 발표될 대입제도개편 내용이 대학입시에 처음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 ① 2019학년도                      ② 2020학년도                      ③ 2021학년도  
④ 2022학년도                      ⑤ 잘 모르겠다

문7. 다음 보기 중 현재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쟁점)이 아닌 것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선발방법의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③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④ 수능평가방법  
⑤ 잘 모르겠다

문8. 다음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③ 논술위주전형                      ④ 실기위주전형  
⑤ 잘 모르겠다

문9. 현재 기준 수시모집에 포함되지 않는 전형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위주전형                      ② 논술위주전형  
③ 수능위주전형                      ④ 실기위주전형  
⑤ 잘 모르겠다

문10.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총 몇 회로 알고 계십니까?

- ① 6회                                      ② 7회                                      ③ 8회  
④ 9회                                      ⑤ 잘 모르겠다

문11. 현재 전국기준 대입제도 중 선발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② 학생부종합전형
- ③ 수학능력시험전형                ④ 논술 및 실기
- ⑤ 잘 모르겠다

문12. 다음 보기 중 현재 수능과목 중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 ④ 탐구                                      ⑤ 잘 모르겠다

문13. 다음 중 대입전형 모집요강 발표를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정부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③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④ 대학
- ⑤ 잘 모르겠다

문14. 다음 중 현재 수능성적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원점수                                      ② 표준점수
- ③ 백분위                                      ④ 등급
- ⑤ 잘 모르겠다

※ 다음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5.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책입안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 대다수 교육 정책들은 너무 복잡해서 나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반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내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견해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합의하기 위해 내 의견을 절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사항이 얼마나 공정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과 정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공정했다	매우 공정했다
1) 자료집 내용	①	②	③	④	⑤
2)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자료 내용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자 진행	①	②	③	④	⑤
4) 모더레이터의 토의 운영	①	②	③	④	⑤
5)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	①	②	③	④	⑤

문17.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다음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과 정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자료집	①	②	③	④	⑤
2)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자료	①	②	③	④	⑤
3) TV토론회	①	②	③	④	⑤
4) 의제 발표	①	②	③	④	⑤
5) 의제 질의응답	①	②	③	④	⑤
6) 분임토의	①	②	③	④	⑤
7) 지인과의 대화 및 의견교환	①	②	③	④	⑤
8) 전체토의	①	②	③	④	⑤

문18. 선생님께서는 의제 전문가들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정 보 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의제 1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2) 의제 2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3) 의제 3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4) 의제 4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문19.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이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2차 속의 토론회에서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분임토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임토의에서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분임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됐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조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입제도 정책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가 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여도 정부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음에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4. 선생님께서는 일반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 ② 10% 이상~20% 미만
- ③ 20% 이상~30% 미만
- ④ 30% 이상~40% 미만
- ⑤ 40% 이상~50% 미만
- ⑥ 50% 이상~60% 미만
- ⑦ 60% 이상~70% 미만
- ⑧ 70% 이상
- ⑨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계
2019학년도	37.0%	:	63.0%	100%
2020학년도	36.7%	:	63.3%	100%

※ 마지막으로 대입제도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 선생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떠한 평가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과목 절대평가	절대평가 과목 확대	현행 유지	상대평가 과목 확대	전과목 상대평가
①	②	③	④	⑤

문26. 선생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 선발방법은 어떤 전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부위주전형
- ② 수능위주전형
- ③ 전형 간 유사한 비율 확보

문27. 증장기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 어떤 전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부교과전형
- ② 학생부종합전형
- ③ 전형 간 유사한 비율 확보

문28. 위의 증장기 방향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 ○

○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

1.1 대국민조사(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인지여부)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알고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전체		20,000	40.4	59.6
성	남자	9,914	41.4	58.6
	여자	10,086	39.3	60.7
연령대	19~29세	3,479	18.4	81.6
	30대	3,427	25.7	74.3
	40대	4,034	49.6	50.4
	50대	3,991	54.6	45.4
	60세 이상	5,069	46.9	53.1
지역	서울	3,901	41.9	58.1
	부산	1,373	40.8	59.2
	대구	957	41.7	58.3
	인천	1,137	40.6	59.4
	광주	547	41.9	58.1
	대전	572	42.0	58.0
	울산	440	34.8	65.2
	경기	4,899	40.2	59.8
	강원	605	38.2	61.8
	충북	614	40.2	59.8
	충남+세종	913	40.3	59.7
	전북	714	42.6	57.4
	전남	736	37.8	62.2
	경북	1,052	38.1	61.9
	경남	1,291	38.7	61.3
제주	249	39.4	60.6	

## 1.2 대국민조사(우선시 할 대입전형)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학생부위주 전형	수능위주 전형	잘 모름
전체		20,000	39.3	43.7	17.0
성	남자	9,914	39.8	45.6	14.7
	여자	10,086	38.8	41.9	19.3
연령대	19~29세	3,479	44.2	44.1	11.8
	30대	3,427	40.6	47.5	11.9
	40대	4,034	39.3	47.5	13.2
	50대	3,991	40.0	45.4	14.6
	60세 이상	5,069	34.4	36.7	28.9
지역	서울	3,901	33.4	50.0	16.7
	부산	1,373	42.0	42.5	15.5
	대구	957	39.0	42.9	18.1
	인천	1,137	44.9	39.1	16.1
	광주	547	41.1	43.7	15.2
	대전	572	39.5	45.8	14.7
	울산	440	43.2	40.6	16.2
	경기	4,899	39.5	45.4	15.1
	강원	605	42.8	38.0	19.2
	충북	614	41.5	39.4	19.0
	충남+세종	913	41.4	37.1	21.5
	전북	714	43.6	40.3	16.1
	전남	736	42.7	34.8	22.5
	경북	1,052	39.2	40.2	20.6
	경남	1,291	38.3	43.9	17.8
	제주	249	36.9	45.0	18.1

### 1.3 대국민조사(학생부위주전형 우선 사유)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⑨
전체		7,852	25.3	35.0	10.8	10.6	13.9	2.8	1.6
성	남자	3,942	24.6	36.3	11.0	8.8	14.5	3.2	1.6
	여자	3,910	26.0	33.7	10.5	12.3	13.2	2.4	1.9
연령대	19~29세	1,536	28.6	25.1	12.5	16.9	10.9	4.4	1.6
	30대	1,391	23.2	38.3	9.9	10.7	12.9	3.9	1.1
	40대	1,584	24.7	39.5	12.1	9.1	10.9	2.5	1.2
	50대	1,596	24.7	38.4	10.7	6.8	16.6	1.5	1.3
	60세 이상	1,745	25.2	33.9	8.7	9.7	17.4	1.8	3.3
지역	서울	1,301	26.0	38.5	8.5	10.9	11.7	2.9	1.5
	부산	577	22.5	35.3	10.9	13.0	14.0	1.9	2.4
	대구	373	25.2	35.1	10.2	10.7	15.5	2.4	0.9
	인천	510	24.7	33.3	9.2	8.8	18.2	4.1	1.7
	광주	225	27.6	34.7	12.9	6.7	15.1	2.7	0.3
	대전	226	22.1	36.3	11.1	12.8	13.3	3.5	0.9
	울산	190	22.6	37.9	11.6	10.0	12.6	1.6	3.7
	경기	1,934	25.9	36.7	8.9	10.4	13.7	3.1	1.3
	강원	259	29.0	30.5	12.0	10.0	11.6	3.5	3.4
	충북	255	29.8	29.0	13.7	8.6	14.9	2.3	1.7
	충남+세종	378	22.0	32.8	17.2	9.8	13.5	2.4	2.3
	전북	311	26.0	31.2	12.5	13.2	13.8	1.9	1.4
	전남	314	25.1	32.2	15.6	8.9	14.3	1.3	2.6
	경북	413	24.0	33.9	13.1	10.4	13.3	2.7	2.6
	경남	494	25.9	31.4	11.3	12.1	14.0	3.0	2.3
제주	92	23.9	34.7	8.7	6.5	21.8	1.1	3.3	

- 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②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③ 지역, 계층, 학교 유형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④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⑥ 기타  
 ⑨ 잘 모르겠다

## 1.4 대국민조사(수능위주전형 우선 사유)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⑨
전체		8,748	59.6	10.3	9.9	6.1	8.9	2.5	2.7
성	남자	4,519	61.2	9.4	9.9	5.3	8.6	3.3	2.3
	여자	4,229	58.0	11.3	9.8	7.0	9.2	1.7	3.0
연령대	19~29세	1,533	64.4	9.9	12.8	4.2	4.9	2.5	1.3
	30대	1,627	67.9	9.7	7.6	5.1	6.6	2.0	1.1
	40대	1,917	66.3	7.6	8.0	7.1	8.1	2.1	0.8
	50대	1,811	56.3	11.8	9.9	6.2	10.3	2.9	2.6
	60세 이상	1,860	44.9	12.5	11.3	7.5	13.8	3.0	7.0
지역	서울	1,949	61.4	10.3	8.9	6.6	8.1	2.7	2.0
	부산	583	58.1	9.9	8.9	8.1	9.8	2.4	2.8
	대구	411	61.1	11.4	9.7	5.1	7.5	2.2	3.0
	인천	444	59.5	9.9	9.0	6.5	9.5	2.5	3.1
	광주	239	62.8	6.7	10.1	5.0	10.9	2.5	2.0
	대전	262	63.0	10.3	9.5	5.7	8.4	1.5	1.6
	울산	179	53.1	9.5	9.5	10.1	10.1	3.4	4.3
	경기	2,224	61.4	9.4	9.7	5.4	8.9	2.8	2.4
	강원	230	55.6	13.0	9.6	5.2	10.4	1.7	4.5
	충북	242	53.8	13.6	12.8	7.4	7.4	1.2	3.8
	충남+세종	339	63.4	8.3	10.3	3.8	9.5	2.9	1.8
	전북	288	54.5	13.2	9.7	8.0	8.3	2.1	4.2
	전남	256	49.2	14.1	14.8	4.7	11.7	2.3	3.2
	경북	423	59.1	9.5	10.6	5.7	9.7	2.6	2.8
	경남	567	57.7	10.4	11.6	5.5	9.0	2.5	3.3
제주	112	51.7	16.1	10.7	11.6	7.2	0.0	2.7	

① 학생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② 수험생이 제도전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③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④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⑥ 기타

⑨ 잘 모르겠다

## 1.5 대국민조사(현재 기준 확대전형)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학생부위주 전형 확대	현재 수준 유지	수능위주 전형 확대	잘 모름
전체		20,000	31.5	13.8	42.0	12.7
성	남자	9,914	32.7	13.2	44.2	9.9
	여자	10,086	30.3	14.5	40.0	15.2
연령대	19~29세	3,479	28.0	19.8	40.8	11.4
	30대	3,427	30.6	14.3	46.0	9.1
	40대	4,034	32.6	11.2	47.9	8.3
	50대	3,991	34.0	11.4	44.3	10.3
	60세 이상	5,069	31.5	13.5	33.8	21.2
지역	서울	3,901	25.6	12.0	50.2	12.2
	부산	1,373	33.4	15.2	39.7	11.7
	대구	957	29.8	14.1	41.2	14.9
	인천	1,137	35.9	14.2	37.1	12.8
	광주	547	33.8	13.4	41.1	11.7
	대전	572	30.4	14.0	44.4	11.2
	울산	440	36.2	17.3	36.8	9.7
	경기	4,899	31.5	13.6	44.1	10.8
	강원	605	37.0	14.1	34.5	14.4
	충북	614	35.8	13.7	35.7	14.8
	충남+세종	913	33.3	13.8	37.0	15.9
	전북	714	34.9	16.1	35.7	13.3
	전남	736	36.8	15.4	32.3	15.5
	경북	1,052	31.8	14.1	37.2	16.9
	경남	1,291	31.5	15.0	40.9	12.6
	제주	249	30.2	13.7	44.2	11.9

## 1.6 대국민조사(중장기 대입정책 방향)

(단위: %)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전체		8,748	29.1	14.2	16.2	9.4	8.7	15.5	1.8	5.1
성	남자	4,519	28.7	14.4	16.8	9.6	8.4	15.9	2.2	4.2
	여자	4,229	29.5	14.0	15.7	9.2	9.0	15.1	1.4	6.1
연령대	19~29세	1,533	28.5	8.5	21.5	12.0	11.8	11.8	1.8	4.2
	30대	1,627	29.7	12.7	20.2	10.4	7.8	14.7	1.8	2.7
	40대	1,917	25.6	16.4	19.4	9.3	10.2	14.9	1.9	2.4
	50대	1,811	31.1	17.6	14.5	9.0	7.3	15.6	1.8	3.1
	60세 이상	1,860	30.3	14.6	8.7	7.3	7.1	18.8	1.9	11.4
지역	서울	1,949	28.8	15.4	19.7	7.2	7.7	15.4	1.9	4.0
	부산	583	29.3	14.3	14.2	9.1	9.6	16.0	1.6	5.9
	대구	411	28.5	13.9	16.9	10.2	7.1	15.4	2.3	5.6
	인천	444	29.9	12.9	16.5	8.4	10.0	16.4	1.1	4.7
	광주	239	30.5	13.9	15.0	12.1	7.9	12.8	2.0	5.8
	대전	262	28.5	14.0	17.1	10.5	7.7	14.9	0.9	6.5
	울산	179	29.3	12.5	16.1	10.7	10.5	14.1	2.3	4.5
	경기	2,224	28.1	14.8	17.3	8.4	9.3	16.0	2.1	4.0
	강원	230	27.6	14.2	16.7	11.1	9.6	12.1	2.0	6.8
	충북	242	30.5	11.1	15.8	11.9	7.8	14.6	1.6	6.7
	충남+세종	339	29.9	13.4	12.9	10.4	8.1	15.7	1.9	7.8
	전북	288	29.3	15.6	10.9	9.7	11.1	15.3	2.8	5.5
	전남	256	29.9	12.6	10.6	13.9	7.9	16.3	0.7	8.1
	경북	423	30.7	11.7	14.4	12.1	8.6	14.7	1.5	6.3
	경남	567	29.6	13.9	13.2	10.5	9.1	16.4	1.8	5.6
제주	112	32.2	14.9	15.6	10.4	6.8	14.1	0.4	5.6	

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

② 학교 교육 정상화나 내실화를 위한 방향

③ 학생선발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

④ 지역, 계층, 학교 유형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

⑤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

⑥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

⑦ 기타

⑨ 잘 모르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장 김영란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말부터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결과’ 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관심과 위로,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단 분들이 두 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 하면서 보여주신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는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90명’ 을 대신하여 발표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 < 작은 대한민국 >

먼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과정을 개괄해 보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과제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공론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공론화가 결정되었습니다.

4월 30일 공론화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의 문제를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안되므로 시나리오워크숍 방식으로 공론화에 부칠 의제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은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공론화 과정의 설계 속에 녹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시민단체, 교사 및 교원단체, 대학관계자 및 대입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3가지 쟁점에 대해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여 의제를 도출하신 분들은 의제발표자로서 공론화의 전 과정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2018년 6월 20일부터 시작된 대국민 전화조사에 응답하신 20,000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하실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되어서 두 차례의 숙의 과정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490명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4가지 의제에 대한 개별적 지지도와 기타 부가질문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 >

이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에게 대입개편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는 영역에 국한되는 것인지, 전문성이 문제되는 영역은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그만인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교과서적인 서술을 한 책 한 두 권만 들춰보아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Robert Alan Dahl)은 “민주주의” 라는 책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우수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병을 치료하면서)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을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당신이 의사가 권고하는 치료과정을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당신의 의사에게 양도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와 정치 엘리트가 당신이 복종해야만 하는 법과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문제는 아주 별개의 문제다.” 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폴 우드러프(Paul Woodruff)는 “최초의 민주주의” 라는 책에서 “ 시민 지혜는 교육을 받은 평범한 일반시민인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한다. (...)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이용해 성공을 거둔 전문가들은 종종 어떤 일이든 시민지혜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가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국가의 결정을 좌우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견해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미래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시민지혜를 통하여 평가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결정은 아닙니다. “정부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정의, 형평, 공정성, 행복, 건강, 생존, 안보, 복리, 평등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로버트 달)

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개편이 이토록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심사항이 되어 온 것도 바로 이런 교육의 중요성 때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도 결국 교육의 본질과 교육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정신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교육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택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민참여단이 실질적으로 국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전문성이나 지식의 정도에서는 전문가들에 미치지 못하였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다양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평가름’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은 시민참여단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를 전달받을 국가교육회의는 물론 공론화과정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전 과정을 언론 등을 통하여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결과 >

이제, 이번 보고서의 핵심 부분인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조사 결과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원회는 개별 의제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개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개별 의제에 대한 지지 정도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조사결과를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원회는 1위와 2위 의제의 지지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와 지지 비율을 분석하고, 의제 간 평균 및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 경우 1위 의제를 다수 의견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둘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은 현행 수준에서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방향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높았으며, 공론화 과정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型的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의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중심의 의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단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한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참여단은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은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였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시민참여단이 주신 감동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늘의 발표를 끝으로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과정과 성과를 백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마치면서 감사드려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축소판으로 ‘대한민국 국민’ 들을 대표했던 시민참여단 490분은 우리 공론화위원회에게는 감동 그 자체이셨습니다. 2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마지막 버스가 토론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은 질서정연하고 의연하셨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공은 모두 그 분들의 몫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부터 2차 숙의토론회까지 함께 했던 공론화 의제 협의회 분들과, 그 분들과 함께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론화 과정 속에서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마지막까지 절제와 조화의 면모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들, 공론화 검증위원회 위원님들, 조사 및 숙의과정을 잘 운영해주신 한국리서치 컨소시엄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론화과정 내내 취재와 보도를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격려하여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8. 3.(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영란